

한국아동패널 부가조사보고서

- 2010년도 출생아 가구 조사

이정림 최은영 도남희 송신영 왕영희 김지형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연구 협력진

성명	소속	직위
박성연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 수
이 숙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 수
박혜원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전공	교 수
김춘경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 수
신유림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부교수
황혜정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 수
나종혜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 수
곽혜경	한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 수

머 리 말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발달에 적합한 육아와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 개발을 위하여 장기적인 중단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는 국가 육아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다 과학적이고 설명력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육아정책의 데이터뱅크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육아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중단적으로 조사하는 '한국아동패널'의 특징상, 1년에 한 번의 조사만으로는 영아기에 이루어지는 급속한 발달을 파악하기에 불충분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아동의 발달의 변화의 예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2년의 시간적 차이를 둔 2010년도 출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부가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한국아동패널'과 별도로, 2010년도에 출생한 1,000명의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들의 특성 및 경향을 조사한 자료이다. 또한 2009년에 새로 도입 또는 확대 실시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이용 및 효과 등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2008년도 출생아 가구와 2010년도 출생아 가구의 특징들을 비교하고 각 시기에 발생하는 요구와 양육실태, 아동의 발달 특성, 육아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에 관해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2010년도 출생아가구 부가조사』에 참여해 주신 가족 및 연구에 도움을 주신 협력 연구진들과 면접원들, 그리고 패널 연구진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연구가 아동 발달과 우리나라의 육아정책 수립에 활발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201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0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연구한 2010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이하, 2010년도 부가조사)는 출생 시기에 따라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 발달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흐름과 부모의 특성 및 태내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횡단적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1차년도인 ‘한국아동패널 2008’에서 구축된 데이터를 통해 밝혀진 아동의 특성 및 경향이 2010년도 부가조사를 통해 이후에 출생한 아동들의 특성 및 추이를 비교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 도입 또는 확대 실시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의 인식여부, 이용여부 및 도움 정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 수집된 조사내용은 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한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아동 발달 특성, 임신 및 출산, 어머니 특성, 부모 특성, 가족 특성 및 육아지원 관련특성의 여섯 영역이었음.
- 2010년도 부가조사의 모집단은 2010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가 해당됨.
- 병원면접조사: 병원에서 이루어진 면접조사는 훈련받은 조사원이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을 주2회 방문하여, 조사 대상인 신생아 가구의 산모에게 구조화된 질문지를 실시하는 것으로 수행하였음.
- 전화조사: 병원면접조사 실시 약 4개월 후인 9월부터 본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가구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현황: 병원면접조사 4개월 이후 실시되는 전화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던 794가구를 위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12월에 전화조사를 종결, 총 731가구(91.9%)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음.

3. 일반조사와 부가조사의 비교

- 조사대상: 일반조사인 한국아동패널연구의 모집단은 2008년 4~7월말 사이에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이며, 2010년도 출생아가구 부가조사의 모집단은 2010년 4~8월초 사이에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신생아가구임.
- 두 연구 모두 '한국아동패널 2008'에서 사용하였던 표집틀을 이용하여 병원을 선정하고 2008년 구축 예비표본 가구 수의 비율에 의거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음.
- 2010년도 부가조사와 한국아동패널연구의 1차년도 조사인 '한국아동패널 2008'의 연구방법은 대체로 동일하나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사연도와 면접원임.

4.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기초분석

- 2010년도 부가조사 자료는 2010년에 출생한 아동의 가구를 대상으로 출생시에 수행한 병원면접조사와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에 수행한 전화조사를 통해 수집된 전화조사 자료임. 병원면접조사의 총 사례수는 1,000가구이며, 전화조사의 총 사례수는 731가구임.
- 2010년도 부가조사의 분석은 다음의 여섯 가지 주제별로 이루어짐.
 - 일반적 특성: 아동 특성, 어머니 특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인구학적 특성 및 어머니의 취업/학업 관련 변인들을 분석하였음.
 - 임신 및 출산 특성: 임신 특성, 출산 특성으로 구분함. 임신 특성은 임신관

런 특성, 태내환경 및 태교로 세분하여 분석하였고, 출산 특성은 출산관련 특성 및 출산계획과 기대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아동발달 특성: 신체발달과 기질로 구분함. 신체발달은 출생 시와 생후 4개월의 체중, 신장, 두위 및 출생 후 건강상태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기질은 정서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음.
- 부모양육 특성: 어머니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어머니 특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결혼만족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가족 특성: 가족생활사건과 가계경제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육아지원관련 특성: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과 육아지원정책 특성으로 구분함.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의 현황 파악과 더불어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및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정책의 방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일반적 특성

- 아동특성: 성별의 경우, 남아 517명(51.7%), 여아 483명(48.3%)이었고, 출생순위의 경우는 첫째와 둘째가 각각 532명(53.2%), 398명(39.8%)이었음.
- 어머니 특성: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1.9세였고,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 32.1세, 비취업모 31.9세로 취업모의 평균연령이 더 높았음. 어머니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39.1%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졸업 31.6%, 2·3년제 대학 22.5%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1차년도 결과와 유사함.
- 어머니의 근로특성: 어머니의 취업·학업 상태는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61.6%, 취업(휴직 포함) 중인 어머니가 37.1%, 학업(휴학 포함) 중인 어머니가 2.1%이었음. 1차년도와 비교하면 1차년도의 전업주부 67.9%에 비해 다소 적은 반면, 취업 또는 학업 중인 어머니는 많았음.

□ 임신 및 출산 특성

- 임신관련 특성: 산모 평균 신장은 161.64cm(1차년도 평균 161.00cm), 산모 체중증가의 평균은 13.51kg(1차년도 13.30kg)이었음. 산모의 임신 방법은 자연임신의 경우가 95.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1차년도

와도 유사한 결과임. 산모의 재태기간은 평균 274.01일이었음.

○ 태내환경

- 임신 중 영양상태는 산모의 대부분인 89.7%가 정상이라고 응답했고, 전체 응답자의 70.4%가 임신 중 출혈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하였음.
- 임신 중 흡연여부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9.3%가 흡연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임신 중 배우자는 전체의 53.3%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었으며, 흡연을 하고 있는 경우는 46.7%로 나타났음. 배우자 흡연의 경우 1차년도에 배우자가 흡연을 한다는 응답비율이 53.5%,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6.5%로 흡연비율이 높았으나 2010년 부가조사에서는 그와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음.
- 산모의 임신 중 음주 여부를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2%가 음주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5.8%는 임신 중에도 음주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임신 중 약물 복용여부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98.6%가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1.4%는 약물을 복용하였다고 응답하였음.

○ 태교

- 태교의 필요성에 대한 산모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하다 34.9%, 약간 필요하다 18.7%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산모가 태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 인터넷을 통해 태교정보를 얻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45.1%), 태교를 시작하는 시기는 임신사실을 알고 난 직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65.3%).
- 태교를 한 이유에 가장 많은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44.7%가 '태아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였고, 태교를 하지 않은 이유에 응답한 산모들은 76.0%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음.
- 태교의 효과에 대한 산모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37.9%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태교의 효과에 대해 인식하는 경우는 32.5%, 태교의 효과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2.3%로 나타났음.
- 임신 중 태교를 했던 어머니를 대상으로 태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이

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아기가 차분하고 순하다(25.0%)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태교를 했던 음악이나 책에 반응을 보인다(22.6%) 등의 순이었음.

○ 출산

- 분만 형태: 자연분만의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51.1%), 계획된 제왕절개(25.8%), 계획되지 않았던 응급 제왕절개(23.1%) 순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1차년도 조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임.
- 분만시 의료적 도움 여부: 전체 응답자 중에서 47.9%는 분만시 의료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전체 응답자 중 34.9%가 유도분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음.
- 분만교육 장소: 분만교육을 받은 장소는 의료기관이 5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배우자가 분만교육에 동참여부: 배우자가 동참하지 않는 경우는 60.1%로 배우자가 분만교육에 동참하는 경우인 39.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퇴원 후 산후조리 장소: 산후조리원의 경우가 53.9%, 자택인 경우는 31.2%, 친정집인 경우는 12.2%로 나타났음.

○ 출산계획과 기대

- 계획임신 여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계획하거나 바랐다는 응답이 72.1%로 가장 많았으나, 21.6%의 부부가 모두 계획하거나 바라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음. 이와 같은 결과는 1차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임.
- 기대성별: 임신 중 바랐던 자녀의 성별은 어머니의 경우 딸이 39.6%, 아들이 30.3%로 딸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았으며, 아버지의 경우도 딸이 40.7%, 아들이 26.0%로 딸을 선호하는 경향이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음. 바라는 성별이 없었다는 응답은 어머니 30.1%, 아버지 33.3%로 나타났음. 1차년도와 비교해볼 때, 어머니(37.9%→39.6%)와 아버지(37.4%→40.7%)모두에게서 딸에 대한 선호가 더 뚜렷해졌음.
- 여아선호 언론보도: 남아선호에서 여아 선호로 바뀌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도된 것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사람은 81.4%(814명)로, 꽤 많은 사람들이 언론보도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언론보도는 취업모보다는 비취업모가 더 많이 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째아의 어머니가 더

많이 접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여아선호 언론보도의 영향: 여아선호 언론보도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 한해서 그러한 언론보도가 자신의 자녀성별 선호도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을 분석한 결과, 자신의 자녀성별 선호도에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5.7%로 많지 않았음.
- 기대자녀수: 기대자녀수는 2명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6.4%로 가장 많았고, 3명이라는 응답이 20.0%, 1명이라는 응답이 11.6%였음. 취업모보다 비취업모의 경우 1명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3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비취업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1차년도 조사에 비해 기대자녀수가 1명이라는 응답이 적었고, 2명과 3명이라는 응답은 많았음.
- 후속출산계획: 병원조사에서 앞으로의 출산계획을 묻는 질문에 약 29.3%가 추가적인 출산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5.7%는 출산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5.0%로 나타났음. 첫째 아이인 경우는 낳겠다는 의견이 49.6%로 나타났고, 둘째 이상의 아이인 경우는 낳지 않겠다는 의견이 과반수가 넘는 79.1%로 나타났음.
- 출산 중단 이유: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로 '이미 계획한 수 만큼의 아이를 낳아서'라는 응답이 25.2%로 가장 많았고, '자녀 교육 비용 때문에'라는 응답이 24.5%,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18.6%'가 그 다음 순이었음. 이러한 결과는 1차년도 조사와 유사한 경향임.
- 이상자녀: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62.1%)이었고, 그 다음은 3명(29.8%)으로 나타났음. 성별 구분에 따른 이상적인 자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딸·아들 구분해서'에 대한 응답이 49.1%이고, '딸·아들 구분없이'가 48.6%로 나타났음.

□ 아동발달 특성

- 신체발달: 출생 시 체중은 3.0kg 이상 3.5kg 미만이 49.1%, 출생 시 신장은 50cm 이상 52cm 미만이 36.8%, 출생 시 두위는 35cm 이상이 25.6%로 가장 많았음. 4개월 시 체중은 8.5kg 이상이 29.3%, 4개월 시 신장은 65cm 이상 70cm 미만이 50.1%, 4개월 시 두위는 41cm 이상 43cm 미만이 33.7%로 가장 많았음.

- 출생 후 건강상태: 부가조사 대상 아동 전체의 89.7%는 출생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반면 5.4%의 아동이 출생 후 황달, 설사 등으로 신생아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출생 후 중환자실이나 인큐베이터 같은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은 비율은 전체의 4.9%로 나타남.
- 기질: 부가조사 대상 아동의 정서성 총점은 11.43점으로 1차년도 총점인 13.45점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양육 특성

- 어머니의 자녀가치: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 문항 평균값은 4.55점, 도구적 가치는 2.87점으로 어머니들이 자녀들에 대해 도구적 가치보다는 정서적 가치에 더 의미를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어머니의 양육신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응답이 48.3%, 자녀 때문에 본인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1.6%로 1차년도와 비슷한 비율이었음. 한편 출산을 경험한 후 양육신념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출산 전에는 '자녀 때문에 본인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56.2%였으나 출산 후에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견해가 73.0%로 출산 전에는 18%에 불과한 비율이 50%이상 증가하였음.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가조사 양육스트레스의 전체 총점은 12.83점으로 1차년도 동일문항을 비교한 총점 13.54점보다 다소 낮았음.
- 남편의 양육참여: 1차년도에 어머니가 인식한 남편의 양육참여의 전체 총점은 6.94점이었으나,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는 7.30점임.

□ 어머니 특성

- 우울: 출산 후 4개월 이후에 측정된 우울을 살펴보면, 출산 전 우울을 측정했을 때보다 정상군의 비율이 76.3%로 높아지고, 경도/중등도가 16.6%로 낮아진 반면 중도의 비율은 7.1%로 더 높아졌음.
- 결혼만족도: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의 결혼만족도는 3.98점으로, 1차년도의 3.78점에 비해 다소 높으며, 결혼생활에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족 특성

- 가족생활사건: 규범적 사건은 .34건, 비규범적 사건은 .59건 정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생활사건은 취업모보다 비취업모가 약간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가계경제요소: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1만원~300만원이 3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1만원~400만원 21.5%, 101만원~300만원이 19.8% 순으로 나타났음.

□ 육아지원관련 특성

-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 대리양육자 유무: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어머니가 혼자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6%, 어머니 외에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4%로 나타났음.
 - 대리양육자 유형: 대리양육자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외조부모가 돌보아주는 경우가 36.0%로 가장 많았으며, 친조부모가 돌보아주는 비율은 27.7%, 친인척은 3.1%였고, 친인척과 외조부모, 친조부모 등의 중복응답을 합해 친인척이 양육을 도와주는 경우가 전체의 7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육아지원정책 특성
 - 2010 부가조사에서 육아지원비, 보육료지원, 고운맘카드, 난임부부지원 및 맞벌이부부 보육료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이용자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의 거의 대부분인 99.7%가 고운맘카드의 시행을 인지하고 있었고, 보육·교육료 지원은 대상자의 80%정도가 시행을 인지하고 있었음. 다른 정책의 시행에 대하여는 조사 대상의 과반수는 인지하고 있고, 반은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정책은 고운맘 카드로서, 고운맘 카드의 시행을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 중 97.4%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정책들은 인지는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었음.
 - 2010년 현재 조사 대상자들이 이용한 육아지원정책 중 이번 임신과 출산

에 가장 영향을 미친 정책은 고운맘 카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향이 있다'와 '없다'의 비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30%에서 40%대로 거의 동일하였음. 그 밖의 다른 정책들은 영향이 '매우 그렇다'와 '그저 그렇다'를 더한 비율이 10%이하에서 30%에 분포한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저 그렇다'를 더한 비율이 20%에서 60%대에 위치하였음.

- 2010년 현재 후속 임신과 출산 계획이 있는 조사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맞벌이부부 보육료지원 확대와 난임부부지원을 후속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인지하였음.

○ 직장의 육아지원정책

- 직장육아지원제도의 시행여부: 조사 대상 중 취업모들이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장에서 출산휴가(95.6%)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육아휴직(86.5%)과 대체인력풀 운영(61.8%)이었음. 1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보육지원을 제외한 모든 제도의 시행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직장육아지원제도의 이용여부: 대부분의 취업모들이 출산휴가(95.4%)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84.4%의 취업모가 대체인력풀을, 64.6%가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책의 방향: 출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대상 어머니의 61.5%가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일하는 부모를 위한 출산·양육지원이 21.3%로 응답하였음.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2
3. 연구 방법	4
II. 일반조사와 부가조사의 비교	10
1. 연구대상	10
2. 연구내용	12
3. 연구방법	12
III.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기초분석	14
1. 분석 개요	14
2. 일반적 특성	18
3. 임신 및 출산 특성	24
4. 아동발달 특성	56
5. 부모의 양육 특성	63
6. 어머니 특성	68
7. 가족 특성	71
8. 육아지원 관련 특성	72
참고문헌	87
부록	89
부록 1. 면접원 교육 자료	91
부록 2. 조사 참여자 선물	98
부록 3. 부가조사 소개 자료(산모용)	100

부록 5. 전화조사용 질문지	108
부록 6. 질문지 원도구 출처목록	116

표 차례

〈표 I-2- 1〉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조사내용	2
〈표 I-3- 1〉	권역별 모집 가구 수와 협력연구진	5
〈표 I-3- 2〉	부가조사 월별 진행 현황: 병원조사	7
〈표 I-3- 3〉	부가조사 월별 진행 현황: 전화조사	8
〈표 II-1- 1〉	한국아동패널연구와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의 모집단 비교	10
〈표 II-1- 2〉	한국아동패널연구와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의 표집 비교	11
〈표 II-3- 1〉	한국아동패널연구와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의 연구방법 비교	13
〈표 III-1- 1〉	분석주제별 구성: 일반적 특성	15
〈표 III-1- 2〉	분석주제별 구성: 임신 및 출산 특성	15
〈표 III-1- 3〉	분석주제별 구성: 아동발달 특성	16
〈표 III-1- 4〉	분석주제별 구성: 부모의 양육 특성	17
〈표 III-1- 5〉	분석주제별 구성: 어머니 특성	17
〈표 III-1- 6〉	분석주제별 구성: 가족 특성	17
〈표 III-1- 7〉	분석주제별 구성: 육아지원 관련특성	18
〈표 III-2- 1〉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19
〈표 III-2- 2〉	어머니 만 연령	20
〈표 III-2- 3〉	어머니 결혼상태	21
〈표 III-2- 4〉	어머니 학력	21
〈표 III-2- 5〉	어머니 취업·학업 상태	22
〈표 III-2- 6〉	어머니 휴직 여부	22
〈표 III-2- 7〉	어머니 직업 - 대분류1)	23
〈표 III-2- 8〉	주 평균 근로시간	23
〈표 III-2- 9〉	향후 1년 내 직장·학업 복귀 또는 시작 계획	24
〈표 III-3- 1〉	산모의 신장	25
〈표 III-3- 2〉	임신 중 체중의 증가	25
〈표 III-3- 3〉	임신 방법	26
〈표 III-3- 4〉	재태 기간	26

〈표 III-3- 5〉 임신 중 영양 상태	27
〈표 III-3- 6〉 임신 중 출혈 정도	27
〈표 III-3- 7〉 임신 중 흡연 여부	28
〈표 III-3- 8〉 임신 중 흡연 빈도	28
〈표 III-3- 9〉 임신 중 흡연량	29
〈표 III-3-10〉 임신 중 배우자의 흡연 여부	29
〈표 III-3-11〉 임신 중 배우자의 흡연 빈도	30
〈표 III-3-12〉 임신 중 배우자의 흡연량	30
〈표 III-3-13〉 임신 중 음주 여부	31
〈표 III-3-14〉 임신 중 음주 빈도	32
〈표 III-3-15〉 임신 중 음주량(한달)	32
〈표 III-3-16〉 임신 중 약물 복용	33
〈표 III-3-17〉 임신 중 질병	33
〈표 III-3-18〉 임신 중 입원	33
〈표 III-3-19〉 임신 중 환경오염 물질에의 노출	34
〈표 III-3-20〉 태교의 필요성	34
〈표 III-3-21〉 태교의 종류	35
〈표 III-3-22〉 태교의 종류(모취업)	35
〈표 III-3-23〉 태교의 종류(출생 순위)	36
〈표 III-3-24〉 태교 정보를 얻는 곳	37
〈표 III-3-25〉 태교 시작 시기	37
〈표 III-3-26〉 태교를 한 이유(중복 응답)	38
〈표 III-3-27〉 태교를 하지 않은 이유	38
〈표 III-3-28〉 태교 효과 인식(어머니)	39
〈표 III-3-29〉 태교 효과 이유	39
〈표 III-3-30〉 분만 형태	40
〈표 III-3-31〉 분만시 의료적 도움(중복 응답)	41
〈표 III-3-32〉 분만교육 장소	41
〈표 III-3-33〉 분만교육(중복응답)	42
〈표 III-3-34〉 배우자의 분만교육 동참 여부	42
〈표 III-3-35〉 퇴원 후 산후조리 장소	43

〈표 III-3-36〉	계획된 임신 여부	43
〈표 III-3-37〉	기대성별	44
〈표 III-3-38〉	어머니 연령별 기대성별	45
〈표 III-3-39〉	어머니가 지각한 어머니 연령별 아버지의 기대성별	45
〈표 III-3-40〉	출생순위별 기대성별(어머니)	46
〈표 III-3-41〉	출생순위별 기대성별(아버지)	46
〈표 III-3-42〉	어머니의 아이 출생성별에 따른 기대성별	47
〈표 III-3-43〉	아버지의 아이 출생성별에 따른 기대성별	47
〈표 III-3-44〉	어머니의 기대 자녀수에 따른 기대성별	48
〈표 III-3-45〉	아버지의 기대 자녀수에 따른 기대 성별	48
〈표 III-3-46〉	여아선호 언론보도	49
〈표 III-3-47〉	여아선호 언론보도의 영향	49
〈표 III-3-48〉	언론보도 전후의 영향	50
〈표 III-3-49〉	기대 자녀수	51
〈표 III-3-50〉	후속 출산 의도(병원조사용)	51
〈표 III-3-51〉	후속 출산 의도(전화조사용)	52
〈표 III-3-52〉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병원조사용)	53
〈표 III-3-53〉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전화조사용)	54
〈표 III-3-54〉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경제적 부담(전화조사용)	55
〈표 III-3-55〉	이상적인 자녀수(병원조사용)	55
〈표 III-3-56〉	이상적인 자녀 성별구분(전화조사용)	56
〈표 III-4 1〉	아동의 신체적 특성	57
〈표 III-4 2〉	출생시 체중	58
〈표 III-4 3〉	4개월시 체중	58
〈표 III-4 4〉	출생시 신장	59
〈표 III-4 5〉	4개월시 신장	59
〈표 III-4 6〉	출생시 두위	60
〈표 III-4 7〉	4개월시 두위	60
〈표 III-4 8〉	출생 후 건강상태(중복응답)	61
〈표 III-4 9〉	기질: 정서성 총점 평균 비교	62
〈표 III-4-10〉	기질: 정서성 문항별 평균	63

〈표 III-5- 1〉 자녀 가치에 대한 인지(병원조사용)	64
〈표 III-5- 2〉 자녀 가치에 대한 인지(전화조사용)	64
〈표 III-5- 3〉 어머니의 양육 신념	65
〈표 III-5- 4〉 어머니의 양육 신념 변화 여부	65
〈표 III-5- 5〉 어머니의 양육 신념의 변화: 출산 전후	66
〈표 III-5- 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67
〈표 III-5- 7〉 남편의 양육참여	67
〈표 III-6- 1〉 어머니의 출산 전 우울 정도(임상집단)	68
〈표 III-6- 2〉 어머니의 출산 후 4개월 우울 정도(임상집단)	69
〈표 III-6- 3〉 어머니의 출산 전 우울 정도(평균)	69
〈표 III-6- 4〉 어머니의 출산 후 4개월 우울 정도(평균)	70
〈표 III-6- 5〉 결혼만족도	70
〈표 III-7- 1〉 가족생활사건	71
〈표 III-7- 2〉 가구 소득	72
〈표 III-8- 1〉 대리양육자 유무	73
〈표 III-8- 2〉 대리 양육자 유형(중복응답 가능)	73
〈표 III-8- 3〉 친인척과의 관계	74
〈표 III-8- 4〉 기타 대리 양육자 유형	74
〈표 III-8- 5〉 자녀양육을 도와주는 사람	75
〈표 III-8- 6〉 육아지원정책의 인지여부	76
〈표 III-8- 7〉 육아지원정책의 이용여부	77
〈표 III-8- 8〉 육아지원정책이 임신과 출산에 미친 영향	79
〈표 III-8- 9〉 육아지원정책이 후속 임신과 출산에 미칠 영향	81
〈표 III-8-10〉 직장육아지원제도의 시행여부(중복응답)	83
〈표 III-8-11〉 직장육아지원제도의 이용여부(중복응답)	84
〈표 III-8-12〉 출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	86

그림 차례

[그림 I-3-1] 권역별 부가조사(병원면접용) 성공률	8
[그림 I-3-2] 권역별 부가조사(전화조사용) 성공률	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0년도에 출생한 1,000명의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횡단적인 자료를 구축한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이하, 2010년도 부가조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2010년도 부가조사는 출생 시기에 따라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 발달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흐름과 부모 특성 및 태내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횡단적 자료를 구축하여, 2008년 1차년도 한국아동패널조사(조복희 외, 2009)에서 분석된 주요 내용들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한국아동패널 2008'에서 구축된 데이터를 통해 밝혀진 아동의 특성 및 경향이 이후에 출생한 아동들의 특성 및 추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둘째, 2009년에 도입 또는 확대 실시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여부, 이용여부 및 도움 정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도부터 실시되어 온 아동 양육비 지원 정책, 보육료 확대 지원 및 고운맘카드 지원 등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생아 및 영유아 가정에 대한 지원 노력들이 2010년에 출생한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 하에 아동의 출생전후 환경, 즉 임신 중 어머니의 신체적·정서적·심리적 특성과 자녀에 대한 태도, 출산 및 임신과 관련한 부모 특성과 인식, 아동의 출생 및 양육에 관련된 사회 정책적 지원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2010년도 부가조사를 통해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출생 시기에 따른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변화의 흐름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 실시되어 온 육아지원정책의 시행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추후의 육아정책 수립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절한 육아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아동의 태내 환경을 조사함으로써 건강한 임신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기존 한국아동패널에서 분석된 주요 결과들과 그 추이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아

동의 발달과 환경의 변화에 대한 폭넓은 자료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연구 내용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 수집된 조사내용은 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한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아동, 어머니), 임신 및 출산, 어머니 특성, 부모 특성, 가족 특성 및 육아지원 관련특성의 여섯 영역으로 나뉜다. 연구내용은 아동의 발달과 연령,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표 1-2-1>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사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표 1-2-1>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조사내용

영역	병원면접용 변인	전화조사용 변인
일반적 특성	신생아와 산모의 인구학적 특성, 건강 특성	아동과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건강 특성, 아동의 기질
임신 및 출산	임신 관련 특성, 출산 관련 특성, 분만 교육, 태내 환경, 태교	후속 출산 계획
어머니 특성	취업/학업상태, 계획, 심리적 특성	직업계획, 심리적 특성
부모 특성	양육 특성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족 특성	가족생활사건	가계경제요소
육아지원 관련특성	-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육아지원정책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신생아 특성과 산모특성으로 구분된다. 먼저 신생아에 관련하여서는 아기의 출산 예정일과 실제출산일, 아동 성별, 출생 시 체중과 신장, 두위, 출생순위 등 인구학적 특성과 건강특성을 조사하였다. 생후 4개월에 실시된 전화조사에서는 4개월 영아의 신체적 발달(체중, 신장, 두위)과 더불어 기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어머니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연령, 결혼 상태, 결혼 기간, 학력 및 건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임신 및 출산 영역으로 임신계획 여부, 임신에 대한 느낌, 임신을 위한 보조생식술의 도움 여부, 분만 형태 및 과정, 분만 교육 참여 여부 및 교육이수 방

법 등 임신관련 특성과 출산관련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태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여부, 태교 경험 및 태교방법, 태교에 대한 정보 제공, 태교시작 시기, 태교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의 질문을 통해 임산부들이 인지하고 경험했던 태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임산부의 태내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임신 중 영양 상태, 음주, 흡연, 출혈정도, 약물 복용, 질병, 본인의 입원, 환경오염물질에의 노출 등 임신 중 산모의 신체적 건강상태 및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어머니의 직업계획, 산전 정서상태에 대해 조사내용을 구성하였다. 먼저 산모가 출산 직전 한 달 동안 어떤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후속 출산 계획, 산모와 남편이 원했던 아이의 성별에 대해 알아보았다. 2008년도 한국아동패널 자료 분석 결과 '여아를 남아보다 더 선호한다.'로 보도되었던 내용이 자신의 자녀성별 선호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알아보았다. 4개월 후에 실시된 전화면접에서는 후속 자녀출산 계획여부를 재질문하였고 후속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어머니의 정서상태가 어떠한지 병원조사와 동일한 질문을 하여 산전·산후의 정서상태를 비교하였다. 또한 향후 1년 내에 직장 또는 학업에 복귀하거나 시작할 계획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부모 특성으로는 어머니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참여 등 부모의 양육 특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어머니의 자녀가치는 병원과 전화면접에서 모두 조사하였고, 그 외의 변인은 4개월 후의 전화면접에서만 정보를 수집하였다.

가족 특성으로는 가족생활사건과 가계의 경제적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임산부의 정신적 스트레스 경험여부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고려하여 배우자와의 갈등, 시대 또는 친정과의 갈등, 이혼, 실직, 가족의 죽음, 사고, 경제적 어려움 등 임신 중 겪은 사건이 있는지 여부를 병원조사에서 파악하여 이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느꼈던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계의 경제적 요소로는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육아지원 관련특성은 크게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육아지원정책으로 나누어 이용현황 실태 조사와 정책의 이용자인 어머니들의 요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아지원 관련특성은 아동이 생후 4개월 된 시점에서

전화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3. 연구 방법

가. 조사대상

2010년도 부가조사의 모집단은 2010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가 해당된다. 한국아동패널 일반조사의 경우(신나리·안재진·이정립·송신영·김영원, 2008), 1단계에서는 신생아 출생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을 추출하고, 2단계에서는 추출된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산모를 중심으로 신생아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2단계 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패널을 구축하였다.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도 ‘한국아동패널 2008’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표집 틀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한국아동패널 2008’ 연구에서는 표본추출의 첫 번째 단계로 전국 의료기관 중 연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의료기관 명부를 추출틀로 사용하여 1차 추출단위인 의료기관을 무선표집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2008’ 연구에서 표집된 병원들 중 표집사례수가 15명 미만이었거나 비협조적이었던 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 중에서 2단계 표본추출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단계로 2차추출 단위에 해당하는 신생아 가구를 추출하기 위한 각 병원별 표본수는 2008년 구축한 예비표본 가구 수의 비율에 의거하여 결정되었다. 표집을 위해 선정된 병원을 방문하기에 앞서 해당 병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6개 권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교수진을 협력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해당권역 병원 신생아 산모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의료기관을 4개월에 걸쳐 주 2회 방문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표 I-3-1 참조).

〈표 1-3-1〉 권역별 모집 가구 수와 협력연구진

권역	소재지	명칭	담당자	모집 인원	소계
서울권	광진구	최차혜병원	박성연 (이화여대)	17	160
	양천구	기쁜소식산부인과		15	
	송파구	고은빛 산부인과		22	
	강동구	미즈여성병원		67	
	은평구	인정병원		39	
경인권	시흥시	중앙산부인과의원	신유림 (가톨릭대)	22	125
	인천 남구	삼성산부인과		33	
	이천시	마리나산부인과의원		40	
	성남분당구	분당차여성병원		30	
경인권 (계속)	안양만안구	필산부인과의원	황혜정 (경기대)	17	183
	수원팔달구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22	
	의정부	신여성병원		75	
	고양일산동구	동원산부인과의원		69	
충청/ 강원권	대전	가양산부인과	나중혜 (한남대)	46	126
	청주시	모태안여성병원		30	
	천안시	이화여성병원		37	
	강릉시	강릉아산병원	곽혜경 (한중대)	13	
경북권	대구남구	대구가톨릭대학병원	김춘경 (경북대)	20	137
	대구달서구	미즈맘여성병원		82	
	구미시	에바마레산부인과		35	
경남권	부산동구	좋은문화병원	박혜원 (울산대)	27	173
	부산사하구	그레이스여성병원		48	
	진주시	보람산부인과의원		29	
	진주시	가야자모병원		14	
	울산시	인석의료재단보람병원		55	
전라권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이 숙 (전남대)	15	96
	전주완산구	미르산부인과의원		30	
	순천시	현대병원		51	

나. 조사방법

2010년도 부가조사의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병원에서 이루어진 면접조사는 조사원이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을

방문하여 조사 대상인 신생아 가구의 산모에게 구조화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면접원을 통해 이뤄진 면접조사이므로 면접원간 조사절차 및 조사진행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 4월 23일과 5월 1일에 면접원 교육을 실시하였다(부록 1 참조). 면접원은 권역별 협력 연구진이 소속한 대학에서 유관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으로 선발하였다. 면접의 응답자가 출산 후 입원하여 산후조리 중인 산모이므로 산모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면접절차는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하였다. 면접원은 각 병원 담당자와 미리 협의하여 시간을 정하여 방문하도록 하였으며, 면접조사이므로 산모나 간호사가 질문지를 직접 작성하지 않도록 하였다. 조사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산모에게 조사 진행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같은 병실에 입원중인 다른 산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였다. 또한 면접 질문지에 대한 내용과 응답 코딩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면접 후 2일 내에 담당 연구진에게 면접 결과를 코딩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코딩자료에는 면접 소요시간 또한 함께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4개월 이후 전화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과 개인정보 기입을 정확히 하도록 당부하였다.

면접원 교육 실시 후 협력 교수진이 해당권역 병원에 사전 방문하여 협조 요청을 하였다. 그 이후, 4월 말과 8월 초 사이에 면접원이 출산 후 병원에 입원 중인 산모 또는 병원 부속 산후조리원에서 조리 중인 산모를 대상으로 접촉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부록 3 참조). 면접 조사기간은 면접원이 2010년 4월과 8월 사이에 주 2회 병원을 방문하여 조사기간 동안에 출산한 모든 산모를 접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면접 장소는 해당병원의 입원실 또는 산후조리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소요시간은 1인당 약 20~30분이 소요되었다.

두 번째 조사로 면접조사 실시 약 4개월 후인 9월부터 본 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연구진들이 자체적으로 가구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병원에서의 면접조사 실시 후 전화조사를 실시하기 전 4개월 동안 퇴원 축하 메시지를 포함하여 매월 1회 문자를 발송하여 표본 유지율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전화조사 실시에 앞서 전화조사를 담당할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졌다. 전화조사는 육아지원정책의 내용 인지여부와 수혜여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제시한 <표 I-2-1>과 같다.

다. 조사현황

2010년 4월부터 8월 초까지 전국 28개 병원을 주 2회 방문하여 총 1,000가구에 대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있던 면접원들은 면접조사의 결과를 매주 연구소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면접 질문지가 모두 수거된 이후, 연구소에서 편차에러를 검토하고 에디팅을 실시하여 병원방문 면접조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각 권역별 병원방문 면접조사의 월별 조사 실시 현황은 다음 <표 I-3-2>와 같다.

<표 I-3-2> 부가조사 월별 진행 현황: 병원조사

단위: 가구, %

구분	서울권	경인권	충청/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	전체	월별 누적 진행률
4, 5월	61	81	45	51	97	20	355	35.5
6월	83	131	49	80	70	66	479	83.4
7월	16	93	25	6	6	10	156	99.0
8월	-	3	7	-	-	-	10	100.0
계	160	308	126	137	173	96	1,000	100.0
표본수	160	308	126	137	173	96	1,000	-
성공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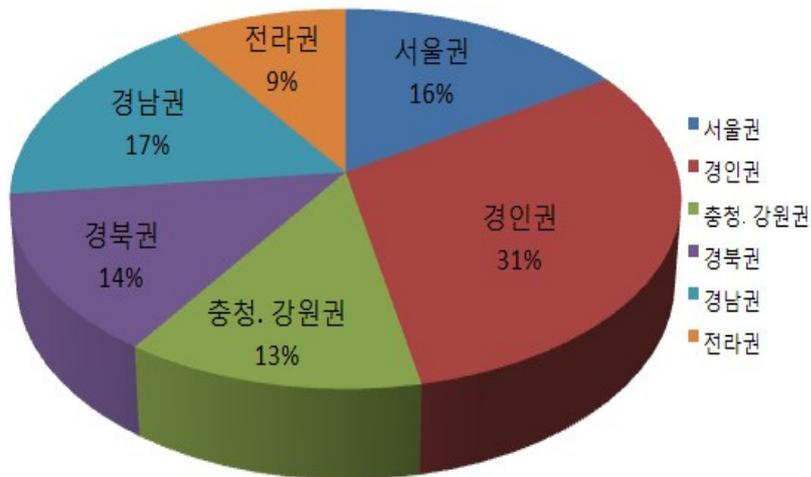
전화조사는 병원에서의 면접 시, 4개월 이후 실시되는 전화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던 794가구를 위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병원면접 시 전화조사 참여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연락처를 제공한 가구의 경우에는 전화조사를 시도하였으며, 이에 응하여 참여한 사례를 포함한 월별 진행 현황은 <표 I-3-3>과 같다. 아동의 월령 및 횡단적 자료의 구축을 위한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12월에 전화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총 731가구(91.9%)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표 1-3-3〉 부가조사 월별 진행 현황: 전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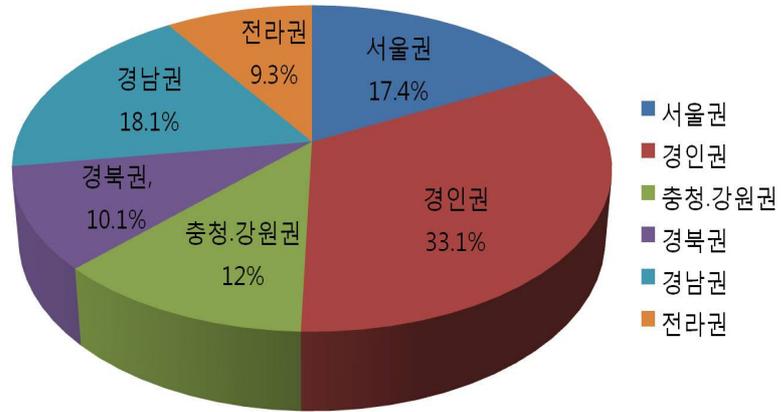
단위: 가구, %

구분	서울권	경인권	충청/ 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	전체	월별 누적 진행률
9월	17	51	14	21	49	2	154	19.4
10월	12	72	20	19	1	0	124	34.9
11월	58	75	30	19	53	41	276	69.6
12월	40	44	24	15	29	25	177	91.9
계	127	242	88	74	132	68	731	-
표본수	138	282	98	66	137	74	795	-
성공률	92.0	85.8	89.8	112.1	97.1	91.9	91.9	-

2010년도 부가조사의 권역별 병원면접의 성공률과 2010년도 부가조사의 권역별 전화조사의 성공률은 [그림 1-3-1], [그림 1-3-2]와 같다.



[그림 1-3-1] 권역별 부가조사(병원면접용) 성공률



[그림 1-3-2] 권역별 부가조사(전화조사용) 성공률

II. 일반조사와 부가조사의 비교1)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는 그 목적에서도 밝혔듯이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조사인 '한국아동패널 2008'(신나리 외, 2008)에서 구축된 데이터를 통해 나타난 한국아동의 특성 및 경향을 2010년에 출생한 아동들의 특성 및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한국아동패널연구 일반조사 1차년도와 2010년도 부가조사를 연구대상,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면에서 비교하였다.

1. 연구대상

2010년도 부가조사의 연구대상의 모집단 및 표본과 한국아동패널연구 대상의 모집단 및 표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가. 모집단

한국아동패널연구의 모집단은 2008년 4~7월말 사이에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이고, 2010년도 부가조사의 모집단은 2010년 4~8월초 사이에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이다(표 II-1-1 참조).

〈표 II-1-1〉 한국아동패널연구와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의 모집단 비교

연구	모집단
한국아동패널연구	2008년 4~7월말 사이에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
2010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2010년 4~8월초 사이에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

한국아동패널 연구와 2010년도 부가조사의 모집단의 차이는 출생연도이다. 이

1) 본 보고서의 주요 비교는 한국아동패널조사의 1차년도 일반조사인 '한국아동패널 2008'과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의 비교로 이루어짐. 각 조사별 정식명칭은 '한국아동패널 2008'과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이나 이후부터는 '1차년도'와 '2010년도 부가조사'로 축약하여 명명함.

는 2010년도 부가조사의 목적 중 하나인 “...출생 시기에 따라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 발달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흐름과 부모의 특성 및 태내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횡단적 자료를 구축하여, 2008년도 제 1차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분석된 주요 내용들과 비교하는 것(p. 1)”에 근거한다.

나. 표집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2008’에서 사용하였던 표집틀을 이용하여 병원을 선정하고 2008년에 구축한 예비표본 가구 수의 비율에 의거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모집단과 마찬가지로, 2010년도 부가조사의 목적을 토대로 이루어진 표본 선정이었다.

병원면접조사와 전화조사로 두 번의 조사를 실시한 2010년도 부가조사는 그 조사시기로 인해 표본의 크기가 다르다. 아기를 출산한 병원 또는 병원 소속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중인 산모와의 면접으로 이루어진 병원조사는 전국 28개의 병원에서 총 1,000명의 2010년 신생아 가구를 최종표본으로 추출하여 수행되었다.

병원조사 시 약 4개월 이후 실시되는 어머니와의 전화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794가구를 위주로 전화조사를 실시, 2010년 12월에 전화조사가 종결되었고, 전화조사의 최종표본은 731가구이다. 즉, 병원조사의 1,000가구 중 전화조사에는 731가구가 참여하여 조사를 완료하였다.

〈표 II-1-2〉 한국아동패널연구와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의 표집 비교

단위: 명

연구	조사	표집수
한국아동패널 2008	병원방문 면접조사	2,562
	전화 면접조사	1,634
	가구방문 면접조사	2,078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병원방문 면접조사	1,000
	전화 면접조사	731

주: 한국아동패널 2008의 전화 면접조사는 병원방문 1개월 후에 패널유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간단한 문항이 조사되었음. 전화 시도에 응답을 하였으나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패널의 수는 443가구이고 이 가구들은 4개월 후에 실시된 가구방문 면접조사에는 참여하였음.

한편, 한국아동패널 2008은 패널 대상 아동이 4개월되는 시기까지 세 번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표본크기가 세 가지이다. 2010년도 부가조사와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도 아기를 출산 후 병원 또는 병원 소속 산후조리원에서 면접을 통한 병원조사가 이루어졌다. 2010년도 부가조사와 다른 점은, 병원면접 1개월 후에는 표본을 유지하기 위해 간단한 전화조사가 실시되었으며, 4개월 후에는 가구방문을 통한 일반조사가 수행되었다. 2010년도 부가조사와 한국아동패널 2008의 표집크기를 각각의 조사별로 비교하면 <표 II-1-2>와 같다. 한국아동패널은 아동의 출생부터 만 12세까지 추적 조사하는 장기간의 종단연구이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표본의 탈락율을 고려하여 보다 큰 규모의 표집이 이루어졌고, 2010년도 부가조사는 횡단연구이므로 병원에서 이루어진 표집의 크기를 1,000명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므로 두 연구의 표집에서 가장 큰 차이는 표본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내용

2010년도 부가조사의 연구내용은 한국아동패널의 연구내용 중 병원조사, 전화조사와 면접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아동패널연구는 장기간 추적조사하는 종단연구라는 특성으로 인해 연구내용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므로,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는 연구내용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연구내용과 비교하여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진 변인은 태교관련 특성, 한국아동패널 2008의 연구 결과인 여아선호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 2010년 조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인식여부, 이용여부, 임신과 출산에 미친 영향 등이었다.

3. 연구방법

<표 II-3-1>은 두 조사의 연구방법을 비교한 표로 2010년도 부가조사와 한국아동패널 2008의 연구방법은 대체로 동일하나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두 연구의 방법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사기간과 면접원이다. 2010년도 부가조사의 표집크기가 한국아동패널의 표집크기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부가조사의 병원조사에서 한국아동패널 2008의 조사보다 1주정도 더 소요된 이유는 근래의 저출산율과 관련이 있다. 이에 한국아동패널 2008의 조사 때와 동일하게 주 2회의 병원을 방문하여 산모를 면접하도록 연구를 계획하였으나, 저조한 출산율로 인해 2010년 4월말부터 진행된 면접조사가 8월 첫주까지 지연되었다.

〈표 II-3-1〉 한국아동패널연구와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의 연구방법 비교

연구	한국아동패널 2008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병원조사	전화조사	가구조사	병원조사	전화조사
유형	질문지	질문지	CAPI	질문지	질문지
주응답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면접원	실사기관의 조사원	실사기관의 조사원	실사기관의 조사원	유관학문 전공 대학원생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자료수집	병원 또는 산후 조리원 방문 면접	전화 면접	가구방문 면접	병원 또는 산후 조리원 방문 면접	전화 면접
시기	2008년 4월~7월말	2008년 5월~8월	2008년 8월 ~2009년 2월말	2010년 4월~8월초	2010년 9월~12월

2010년도 부가조사의 경우, 병원조사의 면접원으로 유관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한 부가조사 및 면접 교육을 받은 후, 병원 또는 병원 소속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중인 산모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4개월 후에 실시된 전화조사는 본 연구소의 연구원이 직접 전화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아동패널은 종단적 연구이고 이에 따른 표본의 수와 패널의 관리 유지를 위해 전문 조사 기관이 실사를 담당하고 있다.

Ⅲ.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기초분석

1. 분석 개요

가. 2010년도 부가조사 자료 개요

2010년도 부가조사 자료는 2010년에 출생한 아동의 가구를 대상으로 출생시에 수행한 병원면접조사와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에 수행한 전화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병원면접조사에서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고, 전화조사에서는 사전에 병원면접조사에서 전화조사에 대한 참여의사를 밝힌 가구와 연락처를 기입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731가구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다. 따라서 병원면접조사의 총 사례수는 1,000가구이며, 전화조사의 총 사례수는 731가구이다.

각 분석주제에 따라 2010년도 부가조사 대상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변인별로 기술 통계를 제시하였으며,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 조사인 '한국아동패널 2008'의 결과와 비교하여 서술하였다. 1차년도 조사의 분석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값이므로 사례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부가조사는 병원면접조사와 전화조사로 나누어져 있기에 이에 따른 사례수를 제시하였다. 또한 2010년 부가조사 내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가중치 작성 시 고려한 변인인 어머니의 취업상태와 아동의 출생 순위에 따른 변인의 차이를 t 검증 또는 x^2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나. 분석주제별 변인 구성

2010년도 부가조사의 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신 및 출산 특성, 아동발달 특성, 양육 특성, 어머니 특성, 가족 특성, 육아지원 관련특성으로 구분하여 주제별로 이루어졌으며, 분석주제별 변인의 구성과 해당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2010년도 부가조사의 일반적 특성은 아동 특성, 어머니 특성으로 구분하여 각

각의 인구학적 특성 및 어머니의 취업/학업 관련 변인들을 분석하였으며, 해당하는 변인은 다음 <표 III-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1-1> 분석주제별 구성: 일반적 특성

구분		변인	해당질문지
아동특성	인구학적 특성	성별, 출생순위 연령	병원면접용 전화조사용
	인구학적 특성	연령, 결혼상태, 결혼시기 최종학력	병원면접용 전화조사용
어머니 특성	근로특성	취업/학업 상태 직장 및 학업 복귀 계획/시기	전화조사용 병원면접용
	취업모 대상 근로특성	직업특성, 종사상 직위, 근로시간	전화조사용

2) 임신 및 출산 특성

2010년도 부가조사의 임신 및 출산 특성은 임신 특성과 출산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임신 특성은 다시 임신관련 특성, 태내환경 및 태교로 세분하여 분석하였고, 출산 특성은 출산관련 특성 및 출산계획과 기대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해당 변인의 구성은 다음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분석주제별 구성: 임신 및 출산 특성

구분		변인	해당질문지
임신	임신관련 특성	산모 신장, 체중 임신방법, 재태기간 이전 임신 경험	병원면접용
	태내 환경	임신 중 영양상태 출혈, 질병, 출산 외 입원 흡연, 주위의 흡연, 음주 약물복용, 환경오염물질 노출, 기타	병원면접용
	태교	태교의 필요성, 방법, 정보, 태교 실시자, 태교 시작시기, 태교한 이유 태교 효과, 태교효과 여부에 따른 이유	병원면접용 병원면접용 전화조사용
출산	출산관련 특성	분만형태, 분만시 의료적 도움 분만 교육, 교육장소 배우자분만교육동참여부 산후조리장소	병원면접용

구분		변인	해당질문지
출산	출산계획과 기대	계획 임신 여부 기대성별 여아선호 언론보도 여아선호언론보도의 영향 기대자녀수	병원면접용
		후속 출산 의도 출산 중단 이유 이상자녀수	병원면접용 전화조사용

주: 태내 환경 중 약물복용과 환경오염물질 노출, 태교의 변인은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만 조사한 내용임.

3) 아동발달 특성

2010년도 부가조사의 아동발달 특성은 신체발달과 기질로 구분하였다. 신체발달은 출생 시와 생후 4개월의 체중, 신장, 두위 및 출생 후 건강상태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기질은 정서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고, 해당하는 변인은 다음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분석주제별 구성: 아동발달 특성

구분	변인	해당질문지
신체발달	출생 시 체중, 신장, 두위	병원면접용
	생후 4개월 체중, 신장, 두위	전화조사용
	출생 후 건강상태	병원면접용
기질	정서성	전화조사용

주: 기질의 원 척도는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으로 기질을 측정함. 그러나 1차년도 조사에서는 신생아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회성을 제외한 정서성과 활동성으로 기질을 측정하고, 2010년도 부가조사에는 정서성 5개 문항으로 측정함.

4) 부모의 양육 특성

2010년도 부가조사의 부모의 양육 특성은 어머니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로 구분하였으며, 해당하는 변인은 <표 III-1-4>와 같다.

〈표 III-1-4〉 분석주제별 구성: 부모의 양육 특성

구분	변인	해당질문지
어머니의 자녀가치	모의 자녀가치	병원면접용 전화조사용
어머니의 양육신념	모의 양육신념	전화조사용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모의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참여	모가 인식한 남편의 양육참여	

5) 어머니 특성

2010년도 부가조사의 어머니 특성은 부정적 심리특성과 결혼만족도로 구분하였으며, 해당하는 변인은 다음 <표 III-1-5>와 같다.

〈표 III-1-5〉 분석주제별 구성: 어머니 특성

구분	변인	해당질문지
부정적 심리특성	우울	병원면접용 전화조사용
결혼만족도	모의 결혼만족도	전화조사용

주: 우울은 출산직전 한 달간의 우울과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0일간의 우울을 병원조사와 전화조사에서 2회 조사하였음.

6) 가족 특성

2010년도 부가조사 분석의 가족 특성은 가족생활사건과 가계경제요소로 구분하였다. 가족생활사건은 규범적 사건과 비규범적 사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가계경제요소로는 월평균소득을 제시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변인은 다음 <표 III-1-6>과 같다.

〈표 III-1-6〉 분석주제별 구성: 가족 특성

구분	변인	해당질문지
가족생활사건	규범적 사건 비규범적 사건	병원면접용
가계경제요소	월평균소득	전화조사용

7) 육아지원 관련특성

2010년도 부가조사의 육아지원 관련특성은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과 육아지원 정책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의 현황 파악과 더불어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및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정책의 방향으로 나누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해당 변인은 다음 <표 III-1-7>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1-7> 분석주제별 구성: 육아지원 관련특성

구분		변인	해당질문지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현황	대리양육자 유무 대리양육자유형 주대리양육자	전화조사용
육아지원 정책 특성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	육아지원비 보육/교육료지원 고운맘카드 난임부부지원 맞벌이부부 보육료지원 확대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직장육아지원제도 시행여부 및 이용여부	
	정책의 방향	바람직한 육아지원 정책방향	

2. 일반적 특성

가. 아동특성

1) 인구학적 특성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을 성별, 출생순위, 연령에 따라 살펴보았다. 성별의 경우 남아 517명(51.7%), 여아 483명(48.3%)이었고, 출생순위의 경우는 첫째와 둘째가 각각 532명(53.2%), 398명(39.8%)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셋째도 64명(6.4%)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동이 출생 후 4개월 시점에서 이루어진 전화조사에서는 병원면접조사 대상자 전체 1,000명 중 731명(73.1%)이 응답하였고, 응답

자 중) 4개월 48.8%, 5개월 32.3%, 6개월 10.3%, 3개월 4.5%, 7개월 3.8%, 8개월 0.3%의 순이었다(표 III-2-1 참조).

2010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도 부가조사 자료와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던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자료를 비교해보면, 아동 성별의 비율은 남아가 여아보다 약간 더 많다는 점이 비슷했다. 아동의 연령은 1차년도 조사에서는 연령의 분포가 3개월에서 10개월의 분포를 보인 것에 반해,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는 3개월에서 8개월의 분포를 보였다는 점이 달랐다. 이러한 연령분포의 차이는 표본의 크기와 조사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조사의 일반조사 표본이 2010년도 부가조사의 전화조사 표본에 비해 거의 3배에 가까우며, 조사는 가구방문으로 이루어졌기에 자료 수집에 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년도 자료와 2010년도 부가조사 모두 4개월에서 5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이 전체의 70%가 넘는다는 점이 같았다.

〈표 III-2-1〉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성별			연령		
남자	51.5	51.7	3개월	0.4	3.3
여자	48.5	48.3	4개월	40.4	35.7
계	100.0	100.0(1,000)	5개월	34.1	23.6
출생순위			6개월	10.6	7.5
첫째	48.3	53.2	7개월	7.5	2.8
둘째	40.9	39.8	8개월	5.4	0.2
셋째	9.5	6.4	9개월	1.2	-
넷째	1.1	0.6	10개월	0.4	-
다섯째 이상	0.3	-	응답자 계	100.0	73.1
			무응답	-	26.9
계	100.0	100.0(1,000)	계	100.0	100.0(1,000)

아동의 출생순위는 2010년도 부가조사와 1차년도 조사 모두 첫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둘째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같았고,

2) 아동의 연령을 본문에서는 전화조사 시에 응답한 731명 중에서 각 월령에 해당하는 유효응답자 비율을 제시하였고, <표 III-2-1>에서는 무응답 값을 포함한 1,00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연령 분포 비율을 제시하였음.

2010년도 부가조사는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분포를 보인 반면, 1차년도 조사에서는 첫째부터 다섯째까지의 분포를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나. 어머니특성

1) 인구학적 특성

2010년도 부가조사에 응답한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1.9세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 32.1세, 비취업모 31.9세로 취업모의 평균연령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2010년도 부가조사 대상 어머니의 연령을 2008년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조사 대상 어머니의 연령과 비교하면 1차년도에 31.1세, 부가조사는 31.9세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표 III-2-2 참조).

〈표 III-2-2〉 어머니 만 연령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취업모	비취업모
평균	31.1	31.9	32.1	31.9
표준편차	3.7	4.0	3.8	4.0
최소값	19	19	19	20
최대값	46	43	42	42.5
<i>t</i>			.82	

단위: 세

주: 모취업 여부에 대한 무응답으로 인해 전체 사례수의 최대값과 각 사례 최대값의 차이가 있음.

2010년도 부가조사 대상 어머니의 현재 결혼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99.1%로 대다수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결혼 상태 중 초혼과 재혼을 포함하여 배우자가 있는 비율(98.2%)과 유사하였다. 2010년도 부가조사 대상 어머니들의 결혼상태 중 이혼은 0.1%, 미혼은 0.8% 응답하였다(표 III-2-3 참조).

〈표 III-2-3〉 어머니 결혼상태

단위: %(명)

구분	유배우		별거	이혼	사별	미혼	계
	초혼	재혼					
1차년도	96.2	2.0	0.1	1.5	-	0.2	100.0
부가조사	99.1		-	0.1	-	0.8	100.0(1,000)

주: 유배우자의 경우 1차년도 조사에서는 초혼과 재혼을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나,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는 초혼과 재혼을 구분하여 묻지 않았음.

2010년도 부가조사 대상자의 어머니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39.1%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졸업 31.6%, 2·3년제 대학 22.5%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III-2-4 참조). 이와 같은 경향은 1차년도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III-2-4〉 어머니 학력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무학	-	0.1
초등학교 졸업	0.1	-
중학교 졸업	0.6	1.2
고등학교 졸업	30.4	31.6
대학(2·3년제 졸업)	28.1	22.5
대학교 졸업	34.5	39.1
대학원 졸업(석사)	6.0	4.9
대학원 졸업(박사)	0.3	0.4
계	100.0	100.0(728)

2) 근로특성

4개월 현재 어머니의 취업·학업 상태는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61.6%로 가장 많았고 휴직을 포함하여 취업 중인 어머니가 37.1%, 휴학을 포함하여 학업 중인 어머니가 2.1%이었다(표 III-2-5 참조). 1차년도와 비교하면 1차년도의 전업주부 67.9%에 비해 다소 적은 반면, 취업 또는 학업 중인 어머니는 많았다.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 어머니의 취업·학업 상태를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첫째아인 어머니의 취업률이 39.9%로 둘째 이상 어머니의 34.0%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전업주부는 둘째 이상인 경우 65.4%, 첫째 58.0%에서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χ^2 검증으로 비교한 결과,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첫째아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둘 이상 둔 어머니들보다 취업 또는 학업을 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5〉 어머니 취업·학업 상태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출생순위	
			첫째	둘째이상
취업 중(휴직 포함)	31.4	37.1	39.9	34.0
학업 중(휴학 포함)	0.7	1.4	2.1	0.6
전업주부	67.9	61.6	58.0	65.4
계	100.0	100.0(731)	100.0(381)	100.0(350)
χ^2			6.46*	

주: 1차년도 전업주부에는 무직자 포함.

* $p < .05$.

출산 휴가가 종료된 4개월 시점에 출생 순위에 따른 휴직 사용 여부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취업 중인 어머니 중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와 휴직 중인 어머니를 나누어 χ^2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출산한 아이가 첫째인 경우에는 어머니가 휴직 중인 비율이 52.6%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보다 많았으나, 둘째 이상인 경우에는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59.7%로 휴직 중인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III-2-6 참조).

〈표 III-2-6〉 어머니 휴직 여부

단위: %(명)

구분	부가조사	출생순위	
		첫째	둘째이상
일을 하고 있음	52.8	47.7	59.7
휴직 중	47.2	52.6	40.3
계	100.0(271)	100.0(152)	100.0(119)
χ^2		4.05*	

* $p < .05$.

어머니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43.2%로 가장 많고 사무 종사자 36.9%, 판매종사자 6.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1차년도 및 2010년도 부가조사 대상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도 유사하였다(표 III-2-7 참조).

〈표 III-2-7〉 어머니 직업 - 대분류¹⁾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출생순위	
			첫째	둘째이상
관리자(1)	3.4	3.7	3.9	3.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2)	46.0	43.2	44.7	41.2
사무 종사자(3)	33.3	36.9	39.5	33.6
서비스 종사자(4)	5.0	5.9	3.9	8.4
판매 종사자(5)	8.7	6.3	4.6	8.4
농업어업 숙련 종사자(6)	-	-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7)	1.3	-	-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8)	1.4	3.7	3.3	4.2
단순노무 종사자(9)	1.0	0.4	-	0.8
군인(A)	-	-	-	-
계	100.0	100.0(271)	100.0(152)	100.0(119)
	χ^2		na ²⁾	

주: 1)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제6차 개정판 대분류 기준임.
 2) na는 사례수 특성상 통계적 차이 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어머니의 4개월 현재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44.1시간으로 주 5일 기준 하루 평균 8.8시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년도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표 III-2-8 참조). 첫째아의 어머니가 둘째아 이상을 둔 어머니보다 근로시간이 조금 더 많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2-8〉 주 평균 근로시간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출생순위	
			첫째	둘째이상
평균	43.8	44.1	44.11	43.99
표준편차	12.4	12.1	9.81	14.43
최소값	3.0	2.5	7	2.5
최대값	96.0	84.0	78	84
	<i>t</i>		.08	

출산 후 향후 1년 내 직장 또는 학업 계획에 대해서는 57.7%의 어머니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31.9%는 전일제로, 10.4%는 시간제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표 III-2-9 참조). 1차년도의 응답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자녀가 첫째인 경우에 향후 1년 이내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반면, 일이나 공부를 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자녀가 둘째 이상 어머니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즉, 자녀가 둘째 이상인 어머니들은 첫째아의 어머니들에 비해 취업 또는 학업을 계획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9〉 향후 1년 내 직장·학업 복귀 또는 시작 계획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출생순위	
			첫째	둘째이상
취업 또는 학업 계획 없음	59.6	57.7	52.8	63.2
시간제로 근무 또는 학업 계획	11.1	10.4	12.0	8.5
전일제로 근무 또는 학업 계획	29.3	31.9	35.2	28.2
계	100.0	100.0(1,000)	100.0(532)	100.0(468)
	χ^2		11.36**	

** $p < .01$.

어머니의 취업 또는 학업에 대한 특성은 대체로 자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자녀 한명을 출산할 때까지는 계속 일을 하거나 학업을 계속하려는 경향이 자녀를 두명 이상 낳을 때보다 강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 향후 1년 내의 계획과 4개월 후 실제 취업·학업 현황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여부 또한 자녀 출생순위에 따라 달라 취업모가 육아휴직을 쓰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임신 및 출산 특성

가. 임신

1) 임신 관련 특성

산모의 임신 관련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산모의 신장, 임신 중 체중 증가, 임신 방법, 재태 기간, 임신 중 영양 상태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0년도 부가조사의 산모 평균 신장은 161.64cm(1차년도 평균 161.00cm)로 나

타났으며,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나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산모의 신장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1 참조).

〈표 III-3-1〉 산모의 신장

단위: cm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평균	161.00	161.64	161.81	161.35	161.99	161.25
표준편차	4.7	4.85	4.61	6.83	4.80	4.89
<i>t</i>			1.00		2.42	

임신 중 산모 체중증가의 평균은 13.51kg(1차년도 13.30kg)이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출생순위에 따라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2 참조).

〈표 III-3-2〉 임신 중 체중의 증가

단위: kg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평균	13.30	13.51	13.83	13.40	14.33	12.58
표준편차	7.9	4.96	4.67	5.20	5.22	4.48
<i>t</i>			1.13		5.62	

산모의 임신 방법을 알아본 결과 자연임신의 경우가 95.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배란유도후 임신을 한 경우 2.8%,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임신 1.6%로 나타났다(표 III-3-3 참조). 이러한 결과는 1차년도와도 유사하였으며, χ^2 검증으로 차이를 비교한 결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녀의 출생순위가 첫째일 경우보다 둘째 이상일 경우 자연임신인 경우가 더 많았고, 출생순위가 첫째일 경우 배란촉진/배란유도 후 임신과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임신이 둘째 이상인 어머니보다 더 많았다.

〈표 III-3-3〉 임신 방법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자연임신	95.9	95.6	96.4	95.1	94.0	97.4
배란촉진/배란유도 후 임신	2.1	2.8	2.5	3.1	3.6	1.9
보조생식술 이용한 임신	2.0	1.6	1.1	1.8	2.4	0.6
계	100.0	100.0(1,000)	100.0(281)	100.0(450)	100.0(532)	100.0(468)
	χ^2		0.84		7.78	

* $p < .05$.

산모의 재태 기간은 평균 274.01일이었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출생순위에 따라 t 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나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산모의 임신 중 체중 증가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4 참조).

〈표 III-3-4〉 재태 기간

단위: 일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평균	274.01	274.55	273.52	276.37	271.33
표준편차	10.23	10.04	9.62	10.07	9.76
t		1.39		7.99	

2) 태내 환경³⁾

산모의 임신 중 환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임신 중 영양 상태, 출혈 정도, 흡연, 음주, 질병, 환경오염 물질 수은, 납, 방사선 등에의 노출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임신 중 상태

산모의 임신 중 영양 상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3-5>와 같다. 산모의 대부분인 89.7%가 정상이었으며, 영양과다인 경우는 6.1%, 영양실조의 경우는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차이검증을 한

3) 태내환경 변인 중 흡연과 음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변인은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만 조사한 변인임.

결과,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임신 중 영양 상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3-5〉 임신 중 영양 상태

단위: %(명)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정상	89.7	89.3	89.8	91.0	88.2
과다	6.1	7.8	5.8	6.2	6.0
실조	4.2	2.8	4.4	2.8	5.8
계	100.0(1,000)	100.0(281)	100.0(450)	100.0(532)	100.0(468)
χ^2		2.27		5.38	

다음으로 산모의 임신 중 출혈 정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4%가 출혈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출혈이 약간 있는 경우는 17.9%, 많이 있었던 경우는 2.6%로 응답했다. 임신 중 출혈 정도는 어머니의 취업여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χ^2 검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III-3-6 참조).

〈표 III-3-6〉 임신 중 출혈 정도

단위: %(명)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매우 많이 있었다	0.5	0.4	0.9	0.6	0.4
많이 있었다	2.6	1.8	3.1	2.3	3.0
약간 있었다	17.9	18.5	16.2	18.2	17.5
거의 없었다	8.6	7.8	9.1	9.4	7.7
전혀 없었다	70.4	71.5	70.7	69.5	71.4
합계	100.0(1,000)	100.0(281)	100.0(450)	100.0(532)	100.0(468)
χ^2		2.77		1.64	

나) 흡연

산모의 임신 중 흡연 여부를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9.3%가 흡연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0.7%는 임신 중에도 여전히 흡연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표 III-3-7 참조). 이 결과는 1차년도 조사와 유사하였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출생순위에 따라서 임신 중 흡연 여부의 차이는 사례수 특성상 검증할 수 없었다.

〈표 III-3-7〉 임신 중 흡연 여부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안 피운다	97.3	99.3	98.9	99.6	99.2	99.4
피운다	0.7	0.7	1.1	0.4	0.8	0.6
임산파 모유수유로 피우지 못함	1.9	-	-	-	-	-
계	100.0	100(100)	100(281)	100(450)	100(532)	100(468)

주: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는 임신 중 흡연 여부를 '피운다'와 '안피운다'로만 질문하여 조사하였음.

임신 중 흡연을 하고 있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의 흡연 빈도와 흡연량을 알아본 결과 임신 중 흡연을 하고 있는 산모들(총 7명)의 흡연 빈도는 하루 동안 0.5회에서 21회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며, 취업모의 경우 하루 평균 14회, 비취업모의 경우 0.5회의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8 참조).

〈표 III-3-8〉 임신 중 흡연 빈도

단위: 회, %(명)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50	28.6	-	100.0	25.0	33.3
1.00	14.3	-	-	0.0	33.3
7.00	14.3	50.0	-	25.0	0.0
21.00	14.3	50.0	-	25.0	0.0
무응답	28.6	-	-	25.0	33.3
계	100.0(7)	100.0(2)	100.0(1)	100.0(4)	100.0(3)
평균	6.00	14.00	.50	9.50	.75
표준편차	8.82	9.90	-	10.48	.35

임신 중 하루 동안의 흡연량은 0.5개비에서 40개비 정도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모의 경우 하루 동안의 흡연량이 30.5개비로 나타나 흡연을 하는 경우 하루 동안의 흡연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9 참조).

〈표 III-3-9〉 임신 중 흡연량

단위: 개비, %(명)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50	28.6	-	100.0	25.0	33.3
2.00	14.3	-	-	0.0	33.3
21.00	14.3	50.0	-	25.0	0.0
40.00	14.3	50.0	-	25.0	0.0
무응답	28.6	-	-	25.0	33.3
계	100.0(7)	100.0(2)	100.0(1)	100.0(4)	100.0(3)
평균	12.80	30.50	.50	20.50	1.25
표준편차	17.51	13.44	-	19.75	1.06

다) 임신 중 배우자 흡연

임신 중 배우자의 흡연 여부, 흡연 빈도, 흡연량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0년 부가조사 대상자의 임신 중 배우자의 흡연에 대한 응답은 전체의 53.3%가 피우지 않고 있었으며, 흡연을 하고 있는 경우는 46.7%로 나타났다(표 III-3-10 참조). 이러한 결과를 1차년도와 비교하면 1차년도에 배우자가 흡연을 한다는 응답비율이 53.5%,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6.5%로 배우자의 흡연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2010년 부가조사에서는 그와 반대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표 III-3-10〉 임신 중 배우자의 흡연 여부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피운다	53.5	46.7	42.7	50.4	44.7	48.9
안 피운다	46.5	53.3	57.3	49.6	55.3	51.1
합계	100.0	100.0(1,000)	100.0(281)	100.0(450)	100.0(532)	100.0(468)
	χ^2		4.16*		1.76	

* $p < .05$.

임신 중 배우자의 흡연여부를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출생순위에 따라 χ^2 검증을 한 결과,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즉 배우자가 흡연을 하는 비율은 비취업모인 경우가 취업모인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흡연(411명)을 하고 있는 배우자들의 하루 동안의 흡연 빈도를 알아본 결과

산모의 배우자는 하루 동안 평균 8.42회의 빈도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며, 하루 동안 40번의 흡연을 하고 있는 경우도 전체 응답자 중 1.5%(6명)로 나타났다. 또한 비취업모의 배우자가 9.01회로 나타나 취업모의 배우자 7.34회보다 흡연 빈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출생순위가 둘째이상일 때 흡연빈도가 8.89회로 첫째아일 때 7.96회보다 흡연빈도가 높았다(표 III-3-11 참조).

〈표 III-3-11〉 임신 중 배우자의 흡연 빈도

단위: %(명)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5회 이하	50.1	49.5	47.7	53.3	46.8
6~10회	30.4	40.8	28.4	28.1	32.8
11~15회	3.4	2.9	4.6	3.3	3.5
16~20회	13.9	5.8	16.2	14.3	13.4
21~30회	0.7	-	1.5	-	1.5
31회 이상	1.5	1.0	1.5	1.0	2.0
합계	100.0(411)	100.0(103)	100.0(197)	100.0(210)	100.0(201)
평균	8.42	7.34	9.01	7.96	8.89
표준편차	7.32	5.64	7.84	6.81	7.81

임신 중 배우자의 흡연량을 살펴본 결과 하루 10개비 이하가 전체 응답자 중 71.2%, 다음으로 하루 11~20개비가 24.9%로 나타났다. 임신 중 배우자의 흡연량은 평균 10.31개비였으며, 어머니의 취업여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III-3-12참조).

〈표 III-3-12〉 임신 중 배우자의 흡연량

단위: %(명)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10개비 이하	71.2	80.4	68.2	73.8	68.6
11~20개비	24.9	17.9	26.6	24.4	25.5
21~30개비	2.3	0.9	3.3	0.2	3.6
31개비 이상	1.6	0.9	1.9	0.2	2.3
계	100.0(441)	100.0(112)	100.0(214)	100.0(221)	100.0(220)
평균	10.31	9.13	10.76	9.62	10.99
표준편차	7.91	6.54	8.39	7.25	8.49

라) 음주

산모의 임신 중 음주 여부를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2%가 음주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5.8%는 임신 중에도 음주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표 III-3-13 참조). 1차년도 조사와 비교했을 때, 27.1%가 임신 중에도 음주를 했다고 응답했고, 안 마신다와 임신과 모유수유로 마시지 못함을 합하여 응답자의 72.9%가 임신 중에 마시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 '임신과 모유수유로 마시지 못함'의 응답 항목을 제외하여 조사함을 고려하여도 산모들이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약 21.3%가량 많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임신 중 음주여부의 차이가 있는지 χ^2 검증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3-13〉 임신 중 음주 여부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안 마신다	41.5	94.2	96.1	94.0	93.8	94.7
마신다	27.1	5.8	3.9	6.0	6.2	5.3
임신과 모유수유로 마시지 못함	31.4	-	-	-	-	-
계	100.0	100(1,000)	100(281)	100(450)	100(532)	100(468)
χ^2			1.53		.34	

주: 2011년도 부가조사에서는 '마신다', '안 마신다'로만 질문하였음.

임신 중 음주를 하고 있는 산모들(58명)을 대상으로 한달 동안의 음주 빈도를 알아본 결과 한달 동안 1회 정도의 음주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41.4%), 다음으로 2회(29.3%), 4회(17.2%)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3-14 참조).

〈표 III-3-14〉 임신 중 음주 빈도

단위: 회, %(명)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20	3.4	9.1	3.8	6.1	0.0
1.00	41.4	45.5	53.8	36.4	48.0
2.00	29.3	18.2	23.1	30.3	28.0
4.00	17.2	27.3	15.4	15.2	20.0
5.00	1.7	-	3.8	3.0	0.0
10.00	1.7	-	-	0.0	4.0
20.00	1.7	-	-	3.0	0.0
무응답	3.4	0.0	3.7	6.1	0.0
계	100.0(58)	100.0(11)	100.0(26)	100.0(33)	100.0(25)
평균	2.38	1.93	1.82	2.50	2.24
표준편차	2.89	1.42	1.29	3.48	1.98

임신 중 음주를 하고 있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음주량을 알아본 결과 취업모의 평균 음주량은 3.59잔, 비취업모의 경우 1.98잔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임신 중 음주량의 차이가 있는지 t 검증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III-3-15 참조).

〈표 III-3-15〉 임신 중 음주량(한달)

단위: 컵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평균	2.81	3.59	1.98	2.52	3.16
표준편차	3.54	4.89	2.61	3.22	3.95
t		1.03		-.63	

마) 약물 복용 및 질병

임신 중 약물 복용여부를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8.6%가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산모의 1.4%는 약물을 복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표 III-3-16 참조). 어머니의 취업 여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χ^2 검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3-16〉 임신 중 약물 복용

단위: %(명)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안 하였다	98.6	98.6	98.9	98.3	98.9
하였다	1.4	1.4	1.1	1.7	1.1
계	100.0(1,000)	100.0(281)	100.0(450)	100.0(532)	100.0(468)
χ^2		na		.70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통계적 차이 검증이 불가능을 의미함.

임신 중 질병을 앓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2%가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5.8%는 질병을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III-3-17 참조). 어머니의 취업 여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서 χ^2 검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3-17〉 임신 중 질병

단위: %(명)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없었다	94.2	94.3	93.6	94.5	93.8
있었다	5.8	5.7	6.4	5.5	6.2
계	100.0(1,000)	100.0(281)	100.0(450)	100.0(532)	100.0(468)
χ^2		.17		.25	

출산을 위한 입원을 제외하고 임신 중 입원을 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2%가 입원한 적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산모의 7.8%만이 입원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18 참조). 어머니의 취업 여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서 χ^2 검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3-18〉 임신 중 입원

단위: %(명)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없었다	92.2	92.2	91.3	93.0	91.2
있었다	7.8	7.8	8.7	7.0	8.8
합계	100.0(1,000)	100.0(281)	100.0(450)	100.0(532)	100.0(468)
χ^2		.16		1.13	

임신 중 환경오염 물질(수은, 납, 방사선 등)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지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8.9%가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환경오염 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1.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19 참조). 어머니의 취업 여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서 χ^2 검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3-19〉 임신 중 환경오염 물질에의 노출

단위: %(명)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있었다	1.1	1.4	0.4	1.7	0.4
없었다	98.9	98.6	99.6	98.3	99.6
합계	100.0(1,000)	100.0(281)	100.0(450)	100.0(532)	100.0(468)
χ^2		na		3.66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통계적 차이 검증이 불가능을 의미함.

3) 태교⁴⁾

산모의 태내환경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태교의 필요성, 태교 정보, 태교 시작 시기, 태교 효과에 대한 산모의 생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태교의 필요성에 대한 산모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하다(34.9%), 약간 필요하다(18.7%)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산모가 태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III-3-20 참조).

〈표 III-3-20〉 태교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전혀 필요하지 않음	0.1	-	0.2	0.2	0.0
거의 필요하지 않음	0.5	0.4	0.4	0.6	0.4
필요함	34.9	35.6	31.8	32.9	37.2
약간 필요함	18.7	18.5	19.1	19.0	18.4
매우 필요함	45.8	45.6	48.4	47.4	44.0
계	100.0(1,000)	100.0(281)	100.0(450)	100.0(532)	100.0(468)

주: 사례수 특성상 χ^2 검증은 불가하였음.

4) 태교 변인은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만 조사한 변인임.

임신 중 경험한 태교의 종류를 태담태교, 음악태교, 음식태교, 놀이 또는 활동태교, 시각태교, 운동태교, 언행태교, 학습태교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태담태교, 음악태교, 음식태교, 언행태교, 운동태교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이태교, 시각태교, 학습태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21 참조)

〈표 III-3-21〉 태교의 종류

단위: %(명)

종류	전혀 하지 않았음	거의 하지 않았음	가끔 하였음	자주 하였음	항상 하였음	계
태담태교	5.0	5.5	43.1	32.1	14.3	100.0(1000)
음악태교	6.2	7.6	41.6	29.4	15.2	100.0(1000)
음식태교	8.4	11.0	30.8	29.5	20.3	100.0(1000)
놀이태교	29.8	28.9	25.6	11.0	4.6	100.0(999)
시각태교	31.0	29.4	27.9	9.0	2.7	100.0(1000)
운동태교	10.1	12.5	34.3	30.0	13.1	100.0(1000)
언행태교	8.2	12.8	36.7	28.7	13.6	100.0(1000)
학습태교	48.4	11.7	22.1	12.3	5.5	100.0(1000)

임신 중 경험한 태교의 종류를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 χ^2 검증을 한 결과 시각태교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태교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서 χ^2 검증을 한 결과 시각태교, 언행태교, 학습태교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태교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2, III-3-23 참조)

〈표 III-3-22〉 태교의 종류(모취업)

단위: %(명)

종류	모취업	전혀 하지 않았음	거의 하지 않았음	가끔 하였음	자주 하였음	항상 하였음	계	χ^2
태담태교	취업모	5.0	5.0	44.8	31.3	13.9	100.0(281)	1.63
태교	비취업모	4.2	6.4	41.3	33.3	14.7	100.0(450)	
음악태교	취업모	5.7	7.1	43.8	28.5	14.9	100.0(281)	1.46
태교	비취업모	7.3	7.1	40.0	30.0	15.6	100.0(450)	
음식태교	취업모	6.8	11.7	32.4	29.5	19.6	100.0(281)	1.49
태교	비취업모	8.7	10.4	32.2	27.6	21.1	100.0(450)	
놀이태교	취업모	30.6	28.1	25.3	12.8	3.2	100.0(281)	2.43
태교	비취업모	28.7	28.5	25.4	11.8	5.6	100.0(449)	

종류	모취업	전혀 하지않았음	거의 하지않았음	가끔 하였음	자주 하였음	항상 하였음	계	χ^2
시각	취업모	30.2	32.7	23.8	12.5	1.4	100.0(281)	10.03*
태교	비취업모	31.6	29.1	28.9	7.1	3.3	100.0(450)	
운동	취업모	10.7	14.6	31.7	31.3	11.7	100.0(281)	4.52
태교	비취업모	9.6	10.2	36.0	30.4	13.8	100.0(450)	
언행	취업모	9.6	12.5	35.2	29.2	13.5	100.0(281)	.77
태교	비취업모	8.0	12.4	37.3	28.4	13.8	100.0(450)	
학습	취업모	44.8	12.1	21.4	14.9	6.8	100.0(281)	2.97
태교	비취업모	47.6	12.7	23.1	11.8	4.9	100.0(450)	

* $p < .05$.

〈표 III-3-23〉 태교의 종류(출생 순위)

단위: %(명)

종류	출생순위	전혀 하지않았음	거의 하지않았음	가끔 하였음	자주 하였음	항상 하였음	계	χ^2
태담	첫째	3.4	4.1	41.7	37.2	13.5	100.0(532)	20.02***
태교	둘째이상	6.8	7.1	44.7	26.3	15.2	100.0(468)	
음악	첫째	4.5	6.6	40.2	33.6	15.0	100.0(532)	14.29**
태교	둘째이상	8.1	8.8	43.2	24.6	15.4	100.0(468)	
음식	첫째	6.6	7.9	30.3	32.3	22.9	100.0(532)	21.52***
태교	둘째이상	10.5	14.5	31.4	26.3	17.3	100.0(468)	
놀이	첫째	33.5	29.3	25.0	9.0	3.2	100.0(532)	14.25**
태교	둘째이상	25.7	28.5	26.3	13.3	6.2	100.0(467)	
시각	첫째	30.8	28.2	30.3	8.3	2.4	100.0(532)	3.79
태교	둘째이상	31.2	30.8	25.2	9.8	3.0	100.0(468)	
운동	첫째	6.4	8.5	33.3	35.7	16.2	100.0(532)	51.24***
태교	둘째이상	14.3	17.1	35.5	23.5	9.6	100.0(468)	
언행	첫째	7.0	12.4	35.7	30.3	14.7	100.0(532)	4.49
태교	둘째이상	9.6	13.2	37.8	26.9	12.4	100.0(468)	
학습	첫째	50.6	12.2	22.4	10.0	4.9	100.0(532)	7.22
태교	둘째이상	45.9	11.1	21.8	15.0	6.2	100.0(468)	

** $p < .01$. *** $p < .001$.

산모들이 태교 정보를 얻는 곳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45.1%), 다음으로 태교에 관한 책이나 강의(29.2%), 친구나 이웃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도 14.4%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24 참조).

〈표 III-3-24〉 태교 정보를 얻는 곳

단위: %(명)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태교에 관한 책/강의	29.2	35.0	27.5	29.0	31.1
인터넷	45.1	45.6	45.7	48.6	43.6
TV 등 방송 매체	3.9	2.2	4.8	2.3	6.0
배우자	0.4	0.4	0.2	0.4	0.4
친정부모님	1.1	0.4	1.1	0.8	1.6
친인척	1.0	1.1	1.1	1.5	0.4
의료기관	0.9	0.4	1.4	0.8	1.1
친구나 이웃	14.4	14.6	16.1	15.8	13.6
기타	1.5	0.4	2.0	1.0	2.2
계	100.0(975)	100.0(274)	100.0(440)	100.0(525)	100.0(450)

주: 사례수 특성상 χ^2 검증은 불가하였음.

산모들이 태교를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임신사실을 알고 난 직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65.3%), 태동을 느낀 다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24.3%, 임신을 준비하면서부터 태교를 시작하는 경우도 3.6%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25 참조). 어머니의 취업 여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χ^2 검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3-25〉 태교 시작 시기

단위: %(명)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결혼 직후부터	0.9	0.4	1.8	1.0	0.9
임신을 준비하면서부터	3.6	4.4	3.4	3.8	3.6
임신사실을 알고 난 직후부터	65.3	72.3	64.3	66.9	67.1
태동을 느낀 다음부터	24.3	19.7	27.3	25.3	24.4
기타	3.4	3.3	3.2	3.0	4.0
계	100.0(975)	100.0(274)	100.0(440)	100.0(525)	100.0(450)
χ^2		8.80		.76	

태교를 한 이유에 대해 다중응답 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는 <표 III-3-26>과 같다. 가장 많은 응답은 태아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는 응답으로 전체 응답자 중 44.7%가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태아의 두뇌발달을 위해서(32.0%), 태아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13.8%)라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26〉 태교를 한 이유(중복 응답)

단위: %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태아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13.8	11.5	13.5	13.6	14.1
태아의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44.7	45.6	44.5	43.9	45.6
태아의 두뇌발달을 위해서	32.0	33.1	32.3	31.9	32.0
태교 내용을 출산 후 태아에게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4.0	4.0	3.9	4.2	3.8
주변 사람들이 권해서	2.3	2.3	2.2	2.7	1.9
주변 산모들이 모두 하는 것 같아서	2.2	2.3	2.1	2.8	1.5
기타	1.0	1.2	1.3	0.9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태교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산모들(25명)을 대상으로 태교를 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본 결과, 76.0%(19명)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27 참조). 대부분의 산모들이 태교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는 있으나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태교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표 III-3-27〉 태교를 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시간이 없어서	76.0	85.7	60.0	71.4	77.8
귀찮아서	4.0	-	10.0	14.3	-
손위 아이에게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4.0	-	10.0	-	5.6
기타	16.0	14.3	20.0	14.3	16.7
계	100.0(25)	100.0(7)	100.0(10)	100.0(7)	100.0(18)

태교의 효과에 대한 산모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37.9%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태교의 효과에 대해 인식하는 경우는 32.5%, 태교의 효과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2.3%로 나타났다(표 III-3-28 참조). 어머니의 취업 여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χ^2 검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3-28〉 태교 효과 인식(어머니)

단위: %(명)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효과 있음	32.5	47.9	42.7	42.0	47.7
효과 없음	2.3	2.5	3.6	3.2	3.2
잘 모르겠음	37.9	49.6	53.7	54.9	49.1
계	100.0(1,000)	100.0(280)	100.0(447)	100.0(379)	100.0(348)
	χ^2	2.19		2.49	

임신 중 태교를 했던 어머니를 대상으로 태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아기가 차분하고 순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5.0%로 가장 많았고, 태교를 했던 음악이나 책에 반응을 보인다 22.6%, 아기가 잘 웃고, 밝고 활발하다 14.3%, 엄마(아빠)와 정서적 교감이 잘 된다 11.9%, 일반적 발달이 빠르다 9.5%, 언어발달이 빠르다 7.1%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3-29 참조).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아이의 정서적인 반응으로 태교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3-29〉 태교 효과 이유

단위: %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차분하고 순함 (정서적으로 안정, 보채지 않고 잘 잠)	25.0	35.0	21.9	31.6	19.6
엄마(아빠)와 정서적 교감이 잘 됨	11.9	5.0	14.1	7.9	15.2
태교했던 음악(책)에 반응을 보임 (좋아한다, 울음을 그친다 등)	22.6	20.0	23.4	23.7	21.7
잘 웃고, 밝고 활발함	14.3	25.0	10.9	10.5	17.4
(일반적) 발달이 빠름(반응이 빠르다)	9.5	-	12.5	13.2	6.5
두뇌 발달이 빠름(똥똥하다, 집중력 뛰어남)	4.8	-	6.3	5.3	4.3
언어발달이 빠름(옹알이가 빠르다)	7.1	10.0	6.3	5.3	8.7
신체적 발달이 빠름(소근육 발달 잘 움직인다 등)	4.8	5.0	4.7	2.6	6.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나. 출산

1) 출산관련 특성

출산 관련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분만 형태, 분만 교육, 배우자 분만 교육 동참 여부, 산후조리 장소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모의 분만 형태를 알아본 결과 자연분만의 경우가 51.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계획된 제왕절개는 25.8%, 계획되지 않았던 응급 제왕절개 2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차년도 조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표 III-3-30 참조). 어머니의 취업 여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χ^2 검증을 한 결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자녀가 첫째일 경우가 자연분만의 비율이 더 많고, 계획된 제왕절개의 비율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획되지 않은 제왕절개의 경우도 자녀가 첫째일 경우가 둘째 이상일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0〉 분만 형태

단위: %(명)

구분	1차조사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자연분만	55.4	51.1	52.7	49.8	52.4	49.6
계획된 제왕절개	26.7	25.8	23.5	27.3	11.3	42.3
계획되지 않았던 응급 제왕절개	17.9	23.1	23.8	22.9	36.3	8.1
계	100.0	100.0(1,000)	100.0(281)	100.0(450)	100.0(532)	100.0(468)
	χ^2		1.34		178.78***	

*** $p < .001$.

2010년 부가조사에서 산모가 분만할 때 의료적 도움을 받았는지 알아본 결과는 <표 III-3-31>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48.0%는 의료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전체 응답자 중 34.9%가 유도분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무통분만을 통해 분만시 의료적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8.0%로 나타났다.

〈표 III-3-31〉 분만시 의료적 도움(중복 응답)

단위: %(명)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해당사항 없음	48.0	38.4	61.6	40.8	59.2
유도분만	34.9	39.0	61.0	70.2	29.8
무통분만	28.0	40.2	59.8	61.4	38.6
기타	0.4	0.0	100.0	75.0	25.0

분만교육을 받은 장소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인 경우가 5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센터 24.0%, 인터넷 동영상 강의 10.4%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3-32 참조). 어머니의 취업 여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χ^2 검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3-32〉 분만교육 장소

단위: %(명)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의료기관	50.8	42.9	52.5	48.6	59.0
문화센터	24.0	25.0	21.3	25.7	17.9
인터넷 동영상 강의	10.4	8.9	12.5	9.7	12.8
기타	14.8	23.2	13.8	16.0	10.3
계	100.0(183)	100.0(56)	100.0(80)	100.0(144)	100.0(39)
χ^2		2.89		2.38	

임신 중 받은 분만교육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분만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가 전체 81.7%로 대다수의 산모들이 분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교육의 경험이 있는 산모의 경우 라마즈 분만이 13.0%, 르봐이예가 5.4% 있었으며, 소프롤로지 분만(2.7%), 그네 분만(2.1%), 수중 분만(2.3%)에 대한 분만교육을 받은 경험도 소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33참조).

〈표 III-3-33〉 분만교육(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해당사항 없음	81.7	37.8	62.2	47.5	52.5
라마즈 분만	13.0	39.4	60.6	79.2	20.8
르봐이에	5.4	46.5	53.5	77.8	22.2
소프톨로지 분만	2.7	28.6	71.4	77.8	22.2
그네 분만	2.1	52.6	47.4	76.2	23.8
수중 분만	2.3	50.0	50.0	73.9	26.1
기타	1.4	54.5	45.5	71.4	28.6

배우자의 분만교육 동참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III-3-3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배우자가 분만교육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는 60.1%로 배우자가 분만교육에 동참하는 경우인 39.9%보다 많았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χ^2 검증을 한 결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자녀가 첫째일 경우에 분만교육에 동참하는 경우가 둘째 이상일 경우보다 많았지만, 배우자가 분만교육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에는 둘째이상일 경우가 첫째일 경우보다 많았다.

〈표 III-3-34〉 배우자의 분만교육 동참 여부

단위: %(명)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예(동참)	39.9	41.1	37.5	43.8	25.6
아니오(동참 안함)	60.1	58.9	62.5	56.3	74.4
계	100.0(183)	100.0(56)	100.0(80)	100.0(144)	100.0(39)
	χ^2	.18		4.20*	

* $p < .05$.

퇴원 후 산후조리 장소를 알아본 결과 산후조리원의 경우가 5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택인 경우는 31.2%, 친정집인 경우는 12.2%로 나타났다 (표 III-3-35 참조).

〈표 III-3-35〉 퇴원 후 산후조리 장소

단위: %(명)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 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자택	31.2	23.4	37.1	21.3	42.3
산후조리원	53.9	63.4	47.8	62.1	44.6
친정	12.2	10.2	12.8	13.9	10.3
시댁	1.9	1.9	1.6	2.2	1.5
기타	0.8	1.1	0.7	0.4	1.3
계	100.0(843)	100.0(265)	100.0(431)	100.0(446)	100.0(397)

2) 출산계획과 기대

가) 계획 임신 여부

아동의 임신을 계획하거나 바랬는지를 묻는 질문에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계획하거나 바랐다는 응답이 72.1%로 가장 많았으나, 21.6%의 부부가 모두 계획하거나 바라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부모 중 한 쪽만 계획하거나 바랐다는 응답 중 어머니만 계획했다는 응답이 1.6%, 아버지만 계획했다는 응답이 4.7%로 나타났다(표 III-3-36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1차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계획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차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표 III-3-36〉 계획된 임신 여부

단위: %(명)

구분	1차 년도	부가 조사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어머니만 계획하거나 바람	2.3	1.6	1.4	1.8	1.1	2.1
아버지만 계획하거나 바람	7.8	4.7	4.6	4.4	3.2	6.4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계획하거나 바람	72.3	72.1	73.9	72.4	77.2	66.2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계획하거나 바라지 않음	17.7	21.6	20.0	21.3	18.5	25.2
전체	100.0	100.0(999)	100.0(281)	100.0(450)	100.0(532)	100.0(468)
χ^2			.34		16.43**	

** $p < .01$.

어머니의 취업 여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χ^2 검증을 한 결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가 첫째일 경우에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가 계획하거나 원한 계획임신인 경우의 비율이 높았고, 자녀가 둘째 이상일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계획하거나 바라지 않았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기대성별

임신 중 바랐던 자녀의 성별은 어머니의 경우 딸이 39.6%, 아들이 30.3%로 딸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았으며, 아버지의 경우도 딸이 40.7%, 아들이 26.0%로 딸을 선호하는 경향이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다. 바라는 성별이 없었다는 응답은 어머니 30.1%, 아버지 33.3%로 나타났다. 1차년도와 비교해볼 때, 어머니(37.9%→39.6%)와 아버지(37.4%→40.7%)모두에게서 딸에 대한 선호가 더 뚜렷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표 III-3-37 참조).

〈표 III-3-37〉 기대성별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남자(아들)	31.3	28.6	30.3(303)	26.0(260)
여자(딸)	37.9	37.4	39.6(396)	40.7(407)
바라는 성별 없음	30.7	34.0	30.1(301)	33.3(333)
전체	100.0	100.0	100.0(1,000)	100.0(1,000)

어머니 연령별 기대성별을 살펴보면, 20대의 어머니는 아들을 원했던 경우는 26.3%, 딸을 원했던 경우는 38.6%였고, 30대의 경우 아들을 기대했던 어머니가 31.9%, 딸을 기대했던 어머니는 40.2%였다. 40대는 아들을 기대했던 경우가 34.3%, 딸을 기대했던 경우는 37.1%로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별 기대성별의 차이를 10대인 어머니를 제외하고 χ^2 검증을 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III-3-38 참조).

〈표 III-3-38〉 어머니 연령별 기대성별

단위: %(명)

구분	모 연령대				전체	χ^2
	10대	20대	30대	40대		
남자(아들)	-	26.3	31.9	34.3	30.3(303)	6.14
여자(딸)	-	38.6	40.2	37.1	39.6(396)	
바라는 성별 없음	100.0	35.2	27.9	28.6	30.1(301)	
계	100.0(1)	100(293)	100(671)	100.0(35)	100(1,000)	

주. χ^2 검증은 10대를 제외한 사례를 분석하였음.

어머니의 연령별로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기대성별을 보면, 20대 어머니의 아버지는 아들을 기대했던 경우는 22.2%, 딸을 기대했던 경우는 43.3%였고, 30대의 경우 아들을 기대했던 아버지가 27.2%, 딸을 기대했던 아버지는 40.1%였다. 40대 경우 아들을 원했던 아버지는 37.1%, 딸을 원했던 아버지는 31.4%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별 아버지의 기대성별의 차이를 10대인 어머니를 제외하고 χ^2 검증을 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III-3-39 참조).

〈표 III-3-39〉 어머니가 지각한 어머니 연령별 아버지의 기대성별

단위: %(명)

구분	모 연령대				전체	χ^2
	10대	20대	30대	40대		
남자(아들)	-	22.2	27.2	37.1	26.0(260)	5.17
여자(딸)	-	43.3	40.1	31.4	40.7(407)	
바라는 성별 없음	100.0	34.5	32.7	31.4	33.3(332)	
계	100.0(1)	100.0(293)	100.0(671)	100.0(35)	100.0(999)	

주. χ^2 검증은 10대를 제외한 사례를 분석하였음.

아이의 출생 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기대성별을 보면, 아들을 바랬던 경우 첫째는 29.1%, 둘째는 30.2%, 셋째는 43.8%로 나타났고, 딸을 기대했던 경우는 첫째와 둘째일 경우, 36.3%와 46.0%로 셋째와 넷째의 경우보다 더 많은 어머니가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40 참조). χ^2 검증을 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즉 자녀의 출생순위가 낮은 어머니일수록 아들을 더 원하였고, 자녀의 출생순위가 첫째 또는 둘째아의 어머니들이 셋째나 넷째 어머니들보다 딸을 더 기대함을 알 수 있다.

〈표 III-3-40〉 출생순위별 기대성별(어머니)

						단위: %(명)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전체	χ^2
남자(아들)	29.1	30.2	43.8	-	30.3(303)	
여자(딸)	36.3	46.0	28.1	33.3	39.6(396)	25.08 ^{***}
바라는 성별 없음	34.6	23.9	28.1	66.7	30.1(301)	
계	100.0(532)	100(398)	100(64)	100(6)	100.0(1,000)	-

*** $p < .001$.

아버지의 경우도 아이가 첫째(23.0%)보다는 둘째(28.9%), 둘째보다는 셋째(35.9%)의 경우 더 아들을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딸을 기대했던 경우는 첫째(42.6%), 둘째(39.7%), 셋째(34.4%) 그리고 넷째(16.7%)의 순으로 갈수록 적게 나타났다(표 III-3-41 참조). 이 차이를 χ^2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자녀의 출생순위가 낮은 아버지일수록 아들을 기대하고, 자녀의 출생순위가 높은 아버지일수록 딸을 기대하였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자녀 출생순위별 기대성별과 동일한 결과이다.

〈표 III-3-41〉 출생순위별 기대성별(아버지)

						단위: %(명)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전체	χ^2
남자(아들)	23.0	28.9	35.9	-	-	
여자(딸)	42.6	39.7	34.4	16.7	40.7	14.58*
바라는 성별 없음	34.4	31.4	29.7	83.3	33.3	
계	100.0(531)	100.0(398)	100.0(64)	100.0(6)	100.0(999)	-

* $p < .05$.

아이 출생성별에 따라 어머니가 기대했던 성별을 보면, 남아를 가진 어머니가 아들을 기대했던 경우는 29.6%, 딸을 기대했던 경우는 37.5%, 바라는 성별이 없음은 32.9%였고, 여아를 가진 어머니가 아들을 기대했던 경우는 31.1%, 딸을 기대했던 경우는 41.8%, 바라는 성별이 없음은 27.1%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χ^2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III-3-42 참조).

〈표 III-3-42〉 어머니의 아이 출생성별에 따른 기대성별

				단위: %(명)
구분	남아	여아	전체	χ^2
남자(아들)	29.6	31.1	30.3	4.09
여자(딸)	37.5	41.8	39.6	
바라는 성별 없음	32.9	27.1	30.1	
계	100.0(517)	100.0(483)	100.0(1,000)	-

한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기대성별의 경우, 아버지는 남아가 있는 경우 아들을 기대했던 정도는 29.5%, 딸을 기대했던 경우는 37.8%, 바라는 성별이 없음은 32.8%로 나타났으며, 여아가 있는 경우는 아들을 바랬던 아버지는 22.4%, 딸을 바랬던 경우는 43.9%, 바라는 성별이 없음은 33.7%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χ^2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아를 가진 경우와 여아를 가진 경우 모두 어머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전반적으로 아들보다는 딸을 더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II-3-43 참조).

〈표 III-3-43〉 아버지의 아이 출생성별에 따른 기대성별

				단위: %(명)
구분	남아	여아	전체	χ^2
남자(아들)	29.5	22.4	26.0(260)	8.11*
여자(딸)	37.8	43.9	40.7(407)	
바라는 성별 없음	32.8	33.7	33.2(333)	
계	100.0(517)	100.0(483)	100.0(1,000)	-

* $p < .05$.

어머니의 기대 자녀수에 따른 기대성별을 분석해 보면, 1명일 때 아들을 바랬던 경우는 29.9%, 딸을 바랬던 경우는 43.7%, 바라는 성별 없음은 26.4%, 2명일 때 아들을 기대했던 경우는 26.1%, 딸을 기대했던 경우는 43.2%, 바라는 성별이 없는 경우는 30.7%였다. 자녀가 3명일 때 아들을 기대했던 경우는 41.3%, 딸을 기대했던 경우는 33.3%, 바라는 성별이 없는 경우는 25.3%, 4명일 때 아들을 원했던 경우는 40.0%, 딸을 원했던 경우는 20.0%, 바라는 성별이 없는 경우가 40.0%로 나타났다. χ^2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기대자녀수에 따른 기대성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즉, 기대하는 자녀의 수가 작을수록 딸을 원하지만, 기대하는 자녀의 수가 증가하면 아들을 더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딸을 둘 이상 가진 어머니의 경우는 아들을 원하면서

기대 자녀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표 III-3-44 참조).

〈표 III-3-44〉 어머니의 기대 자녀수에 따른 기대성별

						단위: %(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전체	χ^2
남자(아들)	29.9	26.1	41.3	40.0	29.9(224)	
여자(딸)	43.7	43.2	33.3	20.0	40.8(306)	15.96*
바라는 성별 없음	26.4	30.7	25.3	40.0	29.3(220)	
계	100.0(87)	100.0(498)	100.0(150)	100.0(15)	100.0(750)	-

* $p < .05$.

아버지의 기대 자녀수 변화에 따른 기대 성별을 알아보면, 기대 자녀수가 한 명일 때, 아들을 원하는 경우는 20.7%, 딸을 원하는 경우는 47.1%, 바라는 성별이 없는 경우가 32.2%이며, 두 명일 때, 아들은 25.3%, 딸은 40.8%, 바라는 성별이 없는 경우는 33.9%로 나타났다. 자녀를 세 명을 원하는 경우 아들은 32.0%, 딸은 40.3%, 바라는 성별이 없는 경우는 27.5%, 네 명의 자녀를 기대할 때는 아들은 6.7%, 딸은 26.7%, 바라는 성별이 없는 경우는 66.7%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χ^2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기대자녀수가 적을 수록 딸을 원하며 기대 자녀수가 많아도 아들보다는 딸을 더 기대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표 III-3-45 참조).

〈표 III-3-45〉 아버지의 기대 자녀수에 따른 기대 성별

						단위: %(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전체	χ^2
남자(아들)	20.7	25.3	32.0	6.7	25.7(193)	
여자(딸)	47.1	40.8	40.3	26.7	41.1(308)	13.64*
바라는 성별 없음	32.2	33.9	27.5	66.7	33.1(248)	
계	100.0(87)	100.0(498)	100.0(149)	100.0(15)	100.0(749)	-

* $p < .05$.

다) 여아선호 언론보도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1차년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2010년에 있었는데, 그러한 언론 보도를 들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부모들의 생각이 남아

선호에서 여아 선호로 바뀌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도된 것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사람은 81.4%(814명)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언론보도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46 참조). 언론보도를 접한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χ^2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I-3-46〉 여아선호 언론보도

단위: %(명)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언론보도 접함	81.4	86.5	80.9	82.1	80.6
언론보도를 접하지 못함	18.6	13.5	19.1	17.9	19.4
계	100.0(1,000)	100.0(281)	100.0(450)	100.0(532)	100.0(468)
χ^2		3.84		.41	

라) 여아선호 언론보도의 영향

여아선호 언론보도를 들었다고 응답한 사람에 한해서 그러한 언론보도가 자신의 성별 선호도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을 분석한 결과, 자신의 성별 선호도에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5.7%로 많지 않았다(표 III-3-47 참조).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χ^2 검증을 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χ^2 검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첫째아를 가진 사람들이 성별선호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많았다.

〈표 III-3-47〉 여아선호 언론보도의 영향

단위: %(명)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성별선호에 영향 있음	5.7	6.2	4.9	7.3	3.7
성별선호에 영향 없음	94.3	93.8	95.1	92.7	96.3
전체	100.0(814)	100.0(243)	100.0(364)	100.0(437)	100.0(377)
χ^2		.43		4.95*	

* $p < .05$.

언론보도의 내용으로 자녀 성별 선호도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들(46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본 결과, 보도 전부터 선호성별이 없었던 사람은 43.5%에서 21.7%로 변화하였고, 처음에 남아를 선호하던 사람 50.0%는 보도가 나간 뒤 남아 선호의 반응이 감소되었다(표 III-3-48 참조). 또한 보도 전 여아선호를 하는 사람(6.5%)은 적은 수였으나, 보도를 접한 후 여아를 선호하는 비율이 훨씬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의 남아선호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언론 보도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III-3-48〉 언론보도 전후의 영향

단위: %(명)

구분	보도 전	보도 후
선호성별 없음	43.5	21.7
남아	50.0	6.5
여아	6.5	71.1
전체	100.0(46)	100.0(46)
<i>t</i>		- 4.69***

*** $p < .001$.

마) 기대자녀수

2010년 출산한 아동의 출생순위에 후속출산 계획인 자녀수를 더하여 기대 자녀수를 산출하였다(후속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 아동의 출생순위를 기대 자녀수로 환산하였다). 기대자녀수는 2명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6.4%로 가장 많았고, 3명이라는 응답이 20.0%, 1명이라는 응답이 11.6%였다. 또한 기대 자녀수가 4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전체의 2.0%였다(표 III-3-49 참조).

취업모보다 비취업모의 경우 1명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3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비취업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조사에 비해 기대자녀수가 1명이라는 응답이 적었고, 2명과 3명이라는 응답은 많았다.

〈표 III-3-49〉 기대 자녀수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1명	25.3	11.6	9.4	13.1	24.8	0.0
2명	57.9	66.4	76.4	61.6	55.3	76.2
3명	14.8	20.0	11.8	23.3	18.2	21.6
4명	1.7	2.0	2.5	2.0	1.7	2.3
5명	0.3	-	-	-	-	-
계	100.0	100.0(1,000)	100.0(203)	100.0(352)	100.0(351)	100.0(399)

주: 아동의 출생순위와 후속출산 계획을 모두 응답한 경우만 산출.

바) 후속 출산 의도

후속 출산 의도는 출산 직후 병원조사와 4개월 후의 전화조사로 두 차례 실시하였다. 먼저 병원조사에서 앞으로의 출산계획을 묻는 질문에 29.3%가 추가적인 출산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45.7%는 출산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5.0%로 나타났다(표 III-3-50 참조). 낳겠다는 응답은 취업모가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비취업모가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아이의 출생순위에 따라서 χ^2 검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첫째 아이인 경우는 낳겠다는 의견이 49.6%로 나타났고, 둘째 이상의 아이인 경우는 낳지 않겠다는 의견이 과반수가 넘는 79.1%로 나타났다.

1차년도와 비교할 때, 후속 출산 의도 중 '낳겠음'이 2010년 부가조사에서 약간 많았고, '낳지 않겠음'이 적은 것을 볼 때, 전반적으로 2년전과 비교하여 후속 출산 의도 비율이 약간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50〉 후속 출산 의도(병원조사용)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낳겠음	28.0	29.3	32.7	27.6	49.6	6.2
낳지 않겠음	49.7	45.7	42.7	48.7	16.4	79.1
잘 모르겠음	22.2	25.0	24.6	23.8	34.0	14.7
기타	0.2	-	-	-	-	-
계	100.0	100.0(1,000)	100.0(281)	100.0(450)	100.0(532)	100.0(468)
χ^2			2.94		411.50***	

*** $p < .001$.

한편, 4개월 이후의 전화조사 결과를 보면 후속출산의도로 낳겠다는 어머니는 35.3%, 낳지 않겠다는 어머니는 45.6%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0%였다(표 III-3-51 참조). 병원조사와 동일하게 어머니의 취업여부,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χ^2 검증을 한 결과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이 첫째일 경우 후속출산을 하겠다는 어머니가 많았고, 둘째 이상일 경우 후속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더 많았다. 1차년도 조사와 2010년도 부가조사를 비교하면, 병원면접조사와 마찬가지로 전화조사에서도 1차년도 후속 출산 의도가 조금씩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51〉 후속 출산 의도(전화조사용)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낳겠음	28.0	35.3	38.1	33.6	58.5	10.0
낳지 않겠음	49.7	45.6	44.8	46.0	18.1	75.4
잘 모르겠음	22.2	19.0	17.1	20.2	23.4	14.3
기타	0.2	0.1	-	0.2	0.0	0.3
계	100.0	100.0(731)	100.0(281)	100.0(450)	100.0(381)	100.0(350)
χ^2			2.58		262.28***	

*** $p < .001$.

후속출산의도에 관한 병원면접 조사와 전화조사를 종합해 볼 때, 출산 직후에 실시한 병원조사보다 4개월 후의 전화조사에서 후속 출산 의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병원조사에서 잘 모르겠음에 의견을 표시한 응답자들이 낳겠음으로 의도를 바꾸었기 때문이며 낳지 않겠음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의도는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사) 출산 중단 이유

<표 III-3-52>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로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라는 응답이 25.2%로 가장 많았고, '자녀 교육 비용 때문에'라는 응답이 24.5%,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18.6%'가 그 다음 순이었다. 이것은 1차년도의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로는 '이미 계획한 수만큼 아이를 낳아서(33.8%)'와 '자녀 교육비용 때문(30.5%)'이라는 응답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II-3-52〉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병원조사용)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자녀 양육 비용 때문에 (아기 관련 생필품, 유급 도우미 비용 등)	5.7	12.3	12.5	12.8	14.9	11.6
자녀 교육 비용 때문에 (유치원/보육시설/학교 이용비용, 사교육 비용 등)	30.5	24.5	22.5	26.0	19.5	25.7
직장/학업 때문에	2.0	3.7	7.5	0.9	6.9	3.0
개인시간/여가 또는 자아성취를 위하여	4.5	2.6	2.5	3.2	3.4	2.4
이미 계획한 수 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33.8	25.2	23.3	24.7	5.7	29.7
나이가 많아서	7.1	11.2	13.3	9.6	10.3	11.4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출산 및 양육 등)	16.4	18.6	16.7	21.0	34.5	14.9
기타	-	2.0	1.7	1.8	4.6	1.4
계	100.0	100.0(1,000)	100.0(120)	100.0(219)	100.0(87)	100.0(370)
	χ^2		12.70		39.42***	

*** $p < .00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결과를 보면, 부가조사 전체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출생순위에 따른 내용을 보면, 첫째아를 가진 어머니가 둘째 이상의 아이를 가진 어머니보다 육체적으로 더 힘들어하는 것(34.5%)을 알 수 있다. 또한 둘째아를 가진 어머니의 경우는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29.7%)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앞서 분석된 기대 자녀수 2명이라는 결과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는 비슷하나, 내용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즉, 2010년 부가조사에서 1차년도에 비해 ‘자녀 양육 비용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또는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더 낳지 않는다는 비율이 조금 많았고, ‘이미 계획한 만큼 낳아서’ 또는 ‘자녀 교육 비용 때문에’ 자녀를 더 낳지 않는다는 비율은 약간 적었다.

병원조사에 이어 4개월 뒤 실시한 전화조사에 의하면 어머니들은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가 37.3%,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18.7%,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출산 및 양육 등)’의 이유가 17.5%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3-53 참조).

〈표 III-3-53〉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전화조사용)

단위: %(명)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경제적으로 부담되어서	37.3	34.9	38.8	29.0	39.5
직장/학업 때문에	8.4	18.3	2.4	13.0	7.2
개인시간/여가 또는 자아성취를 위하여	3.6	0.8	5.3	5.8	3.0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18.7	18.3	18.9	5.8	22.1
나이가 많아서	12.0	11.9	12.1	8.7	12.9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출산 및 양육 등)	17.5	13.5	19.9	33.3	13.3
기타	2.4	2.4	2.4	4.3	1.9
계	100.0(1,000)	100.0(128)	100.0(206)	100.0(69)	100.0(263)
χ^2		29.87***		27.43***	

*** $p < .001$.

<표 III-3-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화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4개월 전 병원조사 결과가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취업여부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취업모 34.9%, 비취업모 38.8%, 첫째아 29.0%, 둘째 이상 39.5%)'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앞서 병원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똑같이 전화조사에서도 첫째아를 가진 어머니들은 그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힘들어서(33.3%)' 자녀를 더 낳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로서 경제적 부담을 응답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구체적 내용을 더 질문하여 분석한 결과, 자녀를 더 낳지 않는 경제적 부담의 근원이 자녀 양육비용(28.5%)보다는 자녀 교육비용(71.5%)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났다(표 III-3-54 참조). 한편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조사한 결과, 취업모는 자녀 양육비용(37.2%), 자녀 교육비용(62.8%)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취업모가 자녀 양육비용(23.8%) 자녀 교육비용(76.3%)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취업모는 교육 비용 뿐만 아니라 양육 비용에 대해서도 비취업모보다 부담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이의 출생순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자녀 교육비용이 자녀 양육비용 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54〉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경제적 부담(전화조사용)

단위: %(명)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자녀양육비용 (아기관련 생필품, 유급도우미 비용)	28.5	37.2	23.8	26.3	28.8
자녀교육비용 (유치원/보육시설/ 학교이용비용, 사교육 등)	71.5	62.8	76.3	73.7	71.2
계	100.0(124)	100.0(44)	100.0(80)	100.0(20)	100.0(104)

아) 이상자녀수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62.1%)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은 3명(29.8%)으로 나타났다(표 III-3-55 참조).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출생순위에 따른 이상 자녀수도 대부분 2명으로 나타났으나, χ^2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1차년도에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해서는 2명이라는 응답이 57.8%로 가장 많았으며, 3명이라는 응답이 31.0%로 유사한 순서를 나타냈다. 다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가 2명이라는 응답에 대한 비율이 1차년도보다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55〉 이상적인 자녀수(병원조사용)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무자녀	0.6	0.1	-	-	0.0	0.2
1명	2.2	2.1	2.1	2.4	2.6	1.5
2명	57.8	62.1	65.4	59.8	64.5	59.4
3명	31.0	29.8	27.1	32.0	27.8	32.1
4명	6.3	3.9	3.2	4.0	3.0	4.9
5명 이상	0.4	0.6	0.4	0.9	0.6	0.6
잘 모르겠음	1.8	1.4	1.8	0.9	1.5	1.3
계	100.0	100.0(1,000)	100.0(280)	100.0(450)	100.0(532)	100.0(468)
	χ^2		4.41		6.49	

한편 4개월 후 실시한 전화조사에서 실시한 이상적인 자녀에 대해 자녀수보다는 성별 구분에 따른 이상적인 자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딸·아들 구분해서'에 대한 응답이 49.1%이고, '딸·아들 구분없이'가 48.6%로 나타났다(표 III-3-56)

참조). 또한 취업모는 '딸·아들 구분없이'가 51.3%이고, 비취업모는 47.0%, 출생 순위에 따른 내용을 보면, 첫째아인 경우보다는 둘째 이상인 경우 '딸·아들 구분없이'보다는 많은 비율인 '딸·아들 구분해서'가 49.4%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 대답한 전화조사의 대상은 후속출산계획에서 '남지 않겠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집단 간의 후속출산계획은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1차년도 조사결과보다 '딸·아들 구분없이'의 응답률은 작았고, '딸·아들 구분해서'의 응답률은 많았다.

〈표 III-3-56〉 이상적인 자녀 성별구분(전화조사용)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딸·아들 구분없이	54.2	49.1	52.6	46.9	49.0	47.1
딸·아들 구분해서	44.3	49.4	46.1	51.5	49.0	49.4
기타	1.4	1.5	1.3	1.7	1.3	2.4
잘 모르겠음	-	0.8	-	-	0.6	1.2
계	100.0	100.0(397)	100.0(154)	100.0(241)	100.0(312)	100.0(85)

4. 아동발달 특성

가. 신체발달

1) 체중, 신장, 두위

건강과 관련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출생 시와 4개월 시의 체중, 신장, 두위를 조사하여 1차년도 자료와 비교하였으며, 이들 조사항목을 어머니의 취업여부, 출생 순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III-4-1 참조).

출생 시 체중은 3.0kg 이상 3.5kg 미만이 49.1%, 출생 시 신장은 50cm 이상 52cm 미만이 36.8%, 출생 시 두위는 35cm 이상이 25.6%로 가장 많았으나 두위의 경우는 체중, 신장과 달리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표 III-4-1 참조).

4개월 시 체중은 8.5kg 이상이 29.3%, 4개월 시 신장은 65cm 이상 70cm 미

만이 50.1%, 4개월 시 두위는 41cm 이상 43cm 미만인 33.7%로 가장 많았다(표 III-4-1 참조).

〈표 III-4-1〉 아동의 신체적 특성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출생시 체중			4개월 체중		
20kg 미만	0.3	1.2	70kg 미만	15.6	13.4
20kg 이상 - 25kg 미만	2.6	2.3	70kg 이상 - 75kg 미만	15.2	17.5
25kg 이상 - 30kg 미만	19.8	20.3	75kg 이상 - 80kg 미만	12.1	14.8
30kg 이상 - 35kg 미만	48.5	49.1	80kg 이상 - 85kg 미만	14.5	23.4
35kg 이상 - 40kg 미만	23.8	23.3	85kg 이상	13.8	29.3
40kg 이상 - 45kg 미만	4.9	3.2	모름	28.7	1.6
45kg 이상	0.2	0.6			
계	100.0	100.0(1,000)	계	100.0	100.0(731)
출생시 신장			4개월 신장		
48cm 미만	17.7	9.6	65cm 미만	18.4	24.5
48cm 이상 - 50cm 미만	25.7	25.3	65cm 이상 - 70cm 미만	31.6	50.1
50cm 이상 - 52cm 미만	35.6	36.8	70cm 이상	6.7	17.2
52cm 이상	21.0	26.3	모름	43.4	8.2
모름	-	2.0			
계	100.0	100.0(1,000)	계	100.0	100.0(731)
출생시 두위			4개월 두위		
33cm 미만	23.1	16.2	41cm 미만	5.1	13.4
33cm 이상 - 34cm 미만	26.6	20.6	41cm 이상 - 43cm 미만	11.3	33.7
34cm 이상 - 35cm 미만	24.8	25.2	43cm 이상	6.7	33.5
35cm 이상	25.5	25.6	모름	76.9	19.4
모름	-	12.4			
계	100.0	100.0(1,000)	계	100.0	100.0(731)

이와 같은 결과를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자료와 비교해보면, 1차년도와 2010년도 부가조사 모두 출생 시 체중은 90%이상의 대부분 아동이 2.5kg 이상 4.0kg 미만의 범주에 속하며, 3.0kg 이상 3.5kg 미만에 속하는 아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점이 같았다. 4개월 시 체중의 경우, 1차년도 자료에서는 8.0kg 이상의 아동이 전체의 28.3%이었으나,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는 과반수이상의 아동이 8.0kg 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2010년에 출생한 아동이 2008년에 출생한 아동보다 전반적으로 체중이 더 많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출생 시 신장은 2010년도 부가조사와 1차년도 조사의 분포가 유사했으며, 4개월 시 신장

도 2010년도 부가조사와 1차년도 조사의 분포 또한 유사했다. 아동의 출생 시 두위는 2010년도 부가조사와 1차년도 조사의 분포도 유사했으며, 4개월 시 두위는 1차년도 자료조사에서는 41cm 이상 43cm 미만에 속하는 아동이 두드러지게 많았으나,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는 43cm 이상인 아동도 41cm 이상 43cm 미만에 속하는 아동만큼 많아서 그 분포가 상이했다. 즉, 2010년도에 태어난 아동이 2008년에 태어난 아동보다 4개월 시 두위가 전반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 시 체중의 평균은 3.25kg이었고, 이는 1차년도 자료조사의 평균 3.27kg보다 약간 낮았다. 4개월 시 체중의 평균은 7.95kg이었고, 이는 1차년도 자료조사의 평균 7.63kg보다 약간 높았다. 즉, 2010년에 태어난 아동이 2008년에 태어난 아동보다 출생 시 체중은 더 적게 나갔고, 4개월 시 체중은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 출생시 체중

단위: kg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평균	3.27	3.25	3.25	3.24	3.27	3.23
표준편차	0.41	0.45	0.44	0.44	0.46	0.42
<i>t</i>			0.32		1.46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출생시 체중 및 4개월 시 체중을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출생시 체중과 4개월시 체중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출생시 체중 및 4개월 시 체중을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출생순위에 따른 출생시 체중과 4개월 시 체중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4-3〉 4개월시 체중

단위: kg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평균	7.63	7.95	7.96	7.94	7.93	7.96
표준편차	0.97	0.98	0.98	0.99	1.00	0.97
<i>t</i>			0.80		-0.39	

아동의 출생 시 신장의 평균은 50.15cm이었고, 이는 1차년도 자료조사의 평균 50.34보다 약간 낮았다(표 III-4-4 참조).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출생시 신장을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출생순위에 따른 출생시 신장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출생시 출생순위가 첫째인 아동이 둘째이상인 아동보다 출생 시의 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4-4〉 출생시 신장

단위: cm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평균	50.34	50.15	50.24	50.16	50.33	49.95
표준편차	2.62	2.84	2.31	2.86	3.08	2.53
<i>t</i>			0.42		2.08*	

* *p* < .05.

4개월 시 신장의 평균은 66.73cm이었고, 이는 1차년도 자료조사의 평균 65.82보다 약간 높았다(표 III-4-5 참조). 즉, 2010년에 태어난 아동이 2008년에 태어난 아동보다 출생 시 신장은 더 작았지만, 4개월 시 신장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4개월 시의 신장을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의 4개월 시 신장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4개월 시 신장을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출생순위에 따른 4개월 시 신장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4개월 시 출생순위가 첫째인 아동이 둘째이상인 아동보다 4개월 시의 신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5〉 4개월시 신장

단위: cm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평균	65.82	66.73	66.82	66.83	67.00	66.42
표준편차	3.20	3.67	5.16	4.72	3.49	3.85
<i>t</i>			1.13		2.04*	

* *p* < .05.

아동의 출생 시 두위의 평균은 33.83cm이었고, 이는 1차년도 자료조사의 평균 33.89cm보다 약간 낮았다(표 III-4-6 참조).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아동의 출생 순위 따른 출생시 두위를 t 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4-6〉 출생시 두위

단위: cm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평균	33.89	33.83	33.11	32.82	33.74	33.93
표준편차	1.75	2.04	4.62	5.43	2.15	1.91
t			0.72		-1.40	

4개월 시 두위의 평균은 42.34cm이었고, 이는 1차년도 자료조사의 평균 41.59cm보다 약간 높았다. 즉, 2010년에 태어난 아동이 2008년에 태어난 아동보다 출생 시 두위는 더 작았지만, 4개월 시 두위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7 참조).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4개월 시 두위를 t 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4-7〉 4개월시 두위

단위: cm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평균	41.59	42.34	42.41	42.30	42.27	42.43
표준편차	2.77	1.98	2.02	1.96	1.82	2.14
t			0.66		-0.97	

요약하자면, 2010년에 출생한 아동이 2008년에 출생한 아동보다 출생 시 체중은 더 적게 나가고, 4개월 시 체중은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에 출생한 아동이 2008년에 출생한 아동보다 출생 시 신장은 더 작지만, 4개월 시 신장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10년에 출생한 아동이 2008년에 출생한 아동보다 출생 시 두위는 더 작지만, 4개월 시 두위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0년에 출생한 아동이 2008년에 출생한 아동보다 출생 시에는 체중, 신장 및 두위가 더 작았지만, 4개월 시 체중, 신장 및 두위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출생 후 건강상태

2010년도 부가조사 대상 아동 전체의 89.7%는 출생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반면 5.4%의 아동이 출생 후 황달, 설사 등으로 신생아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출생 후 중환자실이나 인큐베이터 같은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은 비율은 전체의 4.9%로 나타났다(표 III-4-8 참조). 이를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 결과와 비교해 보면 치료받지 않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입원실 치료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4-8〉 출생 후 건강상태(중복응답)

구분	단위: %	
	1차년도	부가조사
치료 받지 않음	87.4	89.7
입원실 치료(황달, 설사)	9.5	5.4
집중치료실(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치료	3.1	4.9
계	100.0	100.0

나. 기질

Buss와 Plomin(1984)에 의해 제작된 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기질척도는 부모평정용으로, 비교적 문항 수가 적으며, 1세 영아부터 성인기까지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이다. EAS는 정서성, 활동성 및 사회성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영역별 점수의 총합을 산출하여 사용 가능하다. 정서성에서 높은 점수는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냄을 의미하며, 활동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아동은 움직이길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님을 의미하고, 사회성에서의 높은 점수는 아동이 타인과 잘 어울리며 덜 수줍어함을 의미한다.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조사에서는 신생아라는 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사회성 영역을 조사에 포함하지 않고 정서성과 활동성을 조사하였고,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는 사회성과 활동성을 제외하고 정서성만을⁵⁾ 조사,

5)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의 기질 분석 결과, 활동성 평균 19.75점, 최소값 8점, 최대값 25점이었음. 활동성에 비해, 정서성의 표준편차가 더 크고 점수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질문지 상의 제약을 반영하여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는 정서성만을 조사하였음.

분석하였다. 정서성은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정서성의 전반적 경향

<표 III-4-9>에서 보듯이, 정서성의 총점은 11.43점으로 1차년도와 총점인 13.45점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값 5점, 최대값 25점이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정서성을 살펴보면, 취업모의 자녀는 총점이 11.11점, 비취업모의 자녀는 11.60점으로 비취업모가 약간 점수가 높았으나, *t*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1차년도에는 취업모의 자녀의 정서성 평균이 13.45점, 비취업모 자녀 평균이 13.65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1차년도보다 2010년 부가조사에서 출생아의 기질의 총점이 취업모, 비취업모 모두 자녀의 정서성 점수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출생순위에 따른 정서성을 살펴보면, 자녀의 출생순위가 첫째아인 경우 11.77점이었으며 둘째이상인 경우 11.06점이었다. 출생순위에 따른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녀의 출생순위가 첫째아인 경우가 둘째 이상인 경우보다 부모가 더 정서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I-4-9> 기질: 정서성 총점 평균 비교

단위: 점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 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평균	13.45	11.43	11.11	11.63	11.77	11.06
표준편차	3.06	4.11	3.98	4.19	4.06	4.15
<i>t</i>			-1.66		2.34*	

* $p < .05$.

2) 정서성 문항별 평균

아동의 정서적 기질 5개 항목을 어머니로 하여금 평정하게 한 결과는 <표 III-4-10>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종종 보채면서 운다'에서 아동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에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었다. 2008년 한국아동패널의 기질 중 정서성의 문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감정적인 편이다'에서 아동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 2010년 부가조사와 다른 결과를 보인 반면,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에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인 결과는 부가조사와 동일하였다.

〈표 III-4-10〉 기질: 정서성 문항별 평균

단위: 점

문 항		잘 운다	감정적인 편이다	종종 보채면서 운다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화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부가조사	평균	2.22	2.46	2.53	1.75	2.47
	표준편차	1.08	1.17	1.15	1.75	1.26
1차년도	평균	2.45	3.11	2.81	2.25	2.97
	표준편차	0.84	0.78	0.93	0.79	1.02

5. 부모의 양육 특성

가. 어머니의 자녀가치

부가조사에서는 어머니의 자녀가치를 두 차례 병원조사와 4개월 후의 전화조사에서 실시하였다. 자녀 가치는 총 7개 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정서적 가치를 묻는 문항 3개와 도구적 가치를 묻는 문항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의 척도 점수에서 각 척도별 전체 응답 점수를 문항수로 나눈 문항평균값으로 분석하였다.

병원조사용 질문지에 나타난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 문항 평균값은 4.55점, 도구적 가치는 2.87점이었다(표 III-5-1 참조). 이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에 대해 도구적 가치보다는 정서적 가치에 더 의미를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자녀의 도구적가치의 표준편차가 정서적 가치보다 크며, 이는 자녀의 도구적 가치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에서 개인차가 큼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t검증을 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차년도와 비교할 때 부모의 자녀 가치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적 가치의 평균 점수는 1차년도 보다 약간 높았고, 도구적 가치의 평균 점수는 낮았다.

〈표 III-5-1〉 자녀 가치에 대한 인지(병원조사용)

단위: 점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정서적 가치	평균	4.46	4.55	4.56	4.53	4.55	4.54
	표준편차	0.54	0.53	0.50	0.56	0.54	0.53
<i>t</i>			.64		.68		
도구적 가치	평균	2.96	2.87	2.80	2.88	2.85	2.89
	표준편차	0.79	0.84	0.82	0.84	0.85	0.83
<i>t</i>			-1.72		.47		

주: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것임.

전화조사용 질문지에 나타난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 문항 평균값은 4.57점, 도구적 가치는 2.75점이었다(표 III-5-2 참조). 전화조사용 질문지에서도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출생순위에 따른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의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도구적 가치보다는 정서적 가치에 더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또한 1차년도의 자녀 가치와 비교해 볼 때, 병원조사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가치의 평균 점수는 1차년도 보다 약간 높았고 도구적 가치의 평균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 자녀 가치에 대한 인지(전화조사용)

단위: 점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정서적 가치	평균	4.46	4.57	4.59	4.56	4.56	4.58
	표준편차	0.54	0.50	0.50	0.50	0.51	0.49
<i>t</i>			.78		- .52		
도구적 가치	평균	2.96	2.75	2.70	2.79	2.70	2.80
	표준편차	0.79	0.86	0.82	0.88	0.86	0.85
<i>t</i>			-1.38		-1.72		

나. 어머니의 양육신념

부모의 양육신념은 두 가지로 질문하였는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과 자녀 때문에 본인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질문에 1차년도와 비슷한 비율로 대답하였다(표 III-5-3 참조). 한편, 어머니의 48.3%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자녀 때문에 본인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선 안 된다는 대답은 51.6%였다.

〈표 III-5-3〉 어머니의 양육 신념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 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함	47.7	48.3	46.8	49.3	44.5	52.6
자녀 때문에 본인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선 안됨	52.3	51.6	53.2	50.7	55.5	47.4
계	100.0	100.0(731)	100.0(280)	100.0(460)	100.0(380)	100.0(350)
χ^2			.45		4.78 [*]	

* $p < .05$.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신념의 차이를 χ^2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일수록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비율이 높은 반면, 출생순위가 첫째일 경우에는 자녀 때문에 본인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선 안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응답한 어머니의 양육 신념이 출산을 전후로 변화되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출산 전에 비해 양육 신념이 달라졌다는 의견은 24.4%로 나타났고, 양육 신념이 달라지지 않은 경우는 75.5%로 나타났다(표 III-5-4 참조). 출산으로 인한 양육신념의 변화가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5-4〉 어머니의 양육 신념 변화 여부

단위: %(명)

구분	부가조사	모 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견해가 달라짐	24.4	20.7	26.5	23.1	25.7
견해가 달라지지 않음	75.5	79.0	73.5	76.6	74.3
무응답	0.1	0.4	0.0	0.3	0.0
계	100.0(731)	100.0(271)	100.0(460)	100.0(381)	100.0(350)

한편 출산을 경험한 후 양육신념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출산 전에는 '자녀 때문에 본인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56.2%였으나 출산 후에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견해가 73.0%로 출산 전에는 18%에 불과한 비율이 50%이상 증가하였다(표 III-5-5 참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출산이라는 경험이 그 전의 신념에 변화를 가져올 만큼 커다란 생애 사건임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표 III-5-5〉 어머니의 양육 신념의 변화: 출산 전후

구분	단위: %(명)	
	출산 전	출산 후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함	18.0	73.0
자녀 때문에 본인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선 안됨	56.2	26.4
생각해 본 적 없음	25.3	-
무응답	0.6	0.6
계	100.0(178)	100.0(178)
<i>t</i>	-0.33*	

* $p < .05$.

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1차년도에는 5점 척도의 총 10문항으로 측정하였으나 2010년 부가조사 시에는 총 5개 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총 5~25점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1차년도와의 비교를 위해 1차년도와 동일한 문항의 총점과 표준편차로 비교를 하였는데, 부가조사 양육스트레스의 전체 총점은 12.83점으로 1차년도 동일문항을 비교한 총점 13.54점보다 다소 낮았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다소 높으며, 첫째아와 둘째아를 가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음을 볼 수 있는 결과이다(표 III-5-6 참조).

〈표 III-5-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단위: 점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 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총점	13.54	12.83	12.35	13.08	12.75	12.91
표준편차	3.31	3.71	3.68	3.69	3.69	3.72
<i>t</i>			-2.80*		- .57	

주: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함.

* $p < .05$.

라. 남편의 양육참여

1차년도에는 총 4개 문항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부가조사 시에는 2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1차년도와의 비교를 위해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 질문한 문항만을 비교하여 1차년도 자료를 재분석하였다. 1차년도에 어머니가 인식한 남편의 양육참여의 전체 총점은 6.94점이었으나,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는 7.30점이었다.

2010년도 부가조사 자료를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출생순위에 따른 남편의 양육참여정도의 차이를 *t*검증하여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둘째아 이상의 어머니보다 첫째아를 가진 어머니가 남편의 양육참여가 잘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III-5-7 참조).

〈표 III-5-7〉 남편의 양육참여

단위: 점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총점	6.94	7.30	7.50	7.18	7.51	7.08
표준편차	1.85	2.24	2.19	2.26	2.12	2.35
<i>t</i>			1.18		2.61**	

주: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양육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p < .01$.

6. 어머니 특성

가. 우울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특성인 우울을 병원조사와 4개월 후 전화조사의 총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병원조사 시에는 분만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한 달간의 우울을 조사하였고, 전화조사는 병원조사 후 4개월 뒤에 측정됐는데 조사 시점 기준으로 지난 한 달간의 우울을 조사하였다. 우울은 6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가능한 점수 범위는 6~3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6~13점은 정상수준, 14~18점은 경도/중등도(mild/moderate) 우울, 19~30점은 중도(severe) 우울로 분류된다.

출산 전 우울의 정도를 정상, 경도/중등도와 중도로 나누어본 결과, 71.3%는 정상군에 속하는 반면, 나머지 23.1%는 경도/중등도 우울, 5.6%는 중도 우울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1 참조).

〈표 III-6-1〉 어머니의 출산 전 우울 정도(임상집단)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출생순위	
			첫째	둘째이상
정상	74.3	71.3	71.8	70.7
경도/중등도	21.1	23.1	22.0	24.4
중도	4.6	5.6	6.2	4.9
계	100.0	100.0(1,000)	100.0(532)	100.0(468)
	χ^2		1.38	

출산 후 4개월 이후에 측정된 우울을 살펴보면, 출산 전 우울을 측정했을 때보다 정상군의 비율이 76.3%로 높아지고, 경도/중등도이 16.6%로 낮아진 반면 중도의 비율은 7.1%로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표 III-6-2 참조).

모취업 여부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를 χ^2 검증하여 분석한 결과는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경도/중등도 집단과 중도 집단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 전 우울과 출산 후 우울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2> 어머니의 출산 후 4개월 우울 정도(임상집단)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정상	71.5	76.3	81.5	73.2	75.5	77.1
경도/중등도	22.0	16.6	12.9	18.7	16.8	16.3
중도	6.5	7.1	5.5	8.1	7.6	6.6
계	100.0	100.0(1,000)	100.0(271)	100.0(459)	100.0(380)	100.0(350)
	χ^2		6.57*		0.38	

* $p < .05$.

<표 III-6-3>에서 보듯이, 출산 전 우울의 평균점수는 11.56점이었고, 이는 1차년도 조사의 11.27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순위에 따른 어머니들 간의 우울 점수의 차이를 t 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6-3> 어머니의 출산 전 우울 정도(평균)

단위: 점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출생순위	
			첫째	둘째이상
평균	11.27	11.56	11.61	11.50
표준편차	3.91	4.12	4.09	4.16
	t		0.42	

주: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함.

출산 후 4개월 시점에서의 우울의 평균 점수는 10.83점으로 출산 전 우울의 평균점수인 11.56보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표 III-6-4 참조). 이는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조사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1차년도 조사 시에는 출산 후 4개월 시점에서의 우울의 평균점수가 11.67로 출산 전 우울의 평균점수인 11.2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들 간의 우울 점수의 차이를 t 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들 간의 우울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6-4〉 어머니의 출산 후 4개월 우울 정도(평균)

단위: 점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평균	11.67	10.83	10.11	11.26	11.01	10.64
표준편차	4.23	4.42	4.33	4.43	4.56	4.27
<i>t</i>			-3.43**		1.15	

주: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함.

** $p < .01$.

나. 결혼만족도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결혼만족도를 총 4개 문항으로 질문하였으나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는 출산 후 4개월 시점에 어머니를 대상으로 1개 문항(“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의 결혼만족도는 3.98점으로, 1차년도의 3.78점에 비해 다소 높으며, 결혼생활에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취업에 따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결혼만족도 점수는 4.05점,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 점수는 3.94점이며,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이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들이 비취업모들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 출생순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5 참조).

〈표 III-6-5〉 결혼만족도

단위: 점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평균	3.78	3.98	4.06	3.93	4.01	3.95
표준편차	0.81	0.72	0.67	0.75	0.76	0.68
<i>t</i>			2.40*		1.16	

주: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p < .05$.

7. 가족 특성

가. 가족생활사건

가족생활사건은 규범적 사건과 비규범적 사건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에 대해 지난 1년간 가족의 경험 여부를 예(1점)와 아니오(0점)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난 1년 간 가정의 스트레스 유발 사건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2008년도에 조사한 가족생활사건은 규범적 사건 16문항과 비규범적 11문항으로 구성되었고, 1년간 규범적 사건을 평균 3.6건, 비규범적 사건은 평균 0.64건 정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7-1 참조).

2010년 부가조사에는 규범적 사건 3문항과 비규범적 문항 6문항이 제시되었는데, 규범적 사건은 0.34건, 비규범적 사건은 0.59건 정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취업모가 약간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1〉 가족생활사건

단위: 점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취업모	비취업모
규범적 사건	평균	3.62	0.34	0.29	0.38
	표준편차	2.34	0.59	0.54	0.62
비규범적 사건	평균	0.64	0.82	0.80	0.87
	표준편차	0.95	0.99	0.97	1.04

나. 가계경제요소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1만원~300만원이 3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1만원~400만원 21.5%, 101만원~300만원이 19.8%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모 가구의 경우 401만원~500만원이 2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1만원 이상이 22.2%로 나타났다. 한편, 비취업모 가구의 경우는 201만원~300만원이 3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1만원~200만원 26.7%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맞벌이를 하는 취업모 가구가 비취업모 가구보다 가구 소득이 높음을 알 수 있다(표 III-7-2 참조). 이러한 결과는 1차년도 조사결과와 유사하였다.

〈표 III-7-2〉 가구 소득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취업모	비취업모
100만원 이하	2.0	1.6	0.7	2.2
101만원~200만원	29.5	19.8	8.2	27.4
201만원~300만원	35.4	30.1	18.5	37.8
301만원~400만원	17.6	21.5	22.1	21.3
401만원~500만원	9.6	13.8	26.3	6.1
501만원 이상	5.9	13.2	22.2	9.1
계	100.0	100.0(731)	100.0(281)	100.0(445)
	χ^2		160.26***	

*** $p < .001$.

8. 육아지원 관련 특성

가.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1)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가) 대리양육자 유무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어머니가 혼자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6%, 어머니 외에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4%로 나타났다(표 III-8-1 참조). 1차년도와 비교해보면, 도움을 받는 비율이 약 15%정도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대리양육자 유무에 대한 차이를 χ^2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즉,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비취업모의 경우 대부분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고 있으나, 취업모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도움을 받는 비율이 60.9%로 반 이상이 자녀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1〉 대리양육자 유무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도움 받지 않음	84.4	63.6	39.9	78.4	62.6	64.6
도움 받음	15.6	36.4	60.1	21.6	37.4	35.4
계	100.0	100.0(730)	100.0(281)	100.0(449)	100.0(380)	100.0(350)
χ^2			110.83***		.30	

*** $p < .001$.

나) 대리 양육자 유형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를 물어본 결과 외조부모가 돌보아주는 경우가 36.0%로 가장 많았으며, 친조부모가 돌보아주는 비율은 27.7%, 친인척은 3.1%였고, 친인척과 외조부모, 친조부모 등의 중복응답을 합해 친인척이 양육을 도와주는 경우가 전체의 7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8-2 참조).

〈표 III-8-2〉 대리 양육자 유형(중복응답 가능)

단위: %(명)

구분	전체
외조부모	36.0
친조부모	27.7
친인척	3.0
파출부 등 가사를 주로 담당하는 가사 도우미	1.1
친구 또는 이웃	0.4
손위자매형제	0.4
기타	11.7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6.4
친인척과 외조부모 및 친조부모	4.2
가사도우미와 외조부모 및 친조부모	1.9
기타와 외조부모 및 친조부모	5.9
이외 중복응답	1.3
계	100.0

대리 양육자 유형 중 친인척이라고 응답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과 친인척과의 관계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이모라고 응답한 비율이 76.1%, 이모할머니가 9.5%로 외가에서 자녀양육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8-3 참조).

〈표 Ⅲ-8-3〉 친인척과의 관계

단위: %(명)	
구분	전체
이모	76.1
이모할머니	9.5
증조할머니	4.8
큰어머니	4.8
고모	4.8
계	100.0(21)

대리 양육자 유형 중 기타라고 응답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과의 관계에 대해 물어본 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64.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베이비시터가 1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8-4 참조).

〈표 Ⅲ-8-4〉 기타 대리 양육자 유형

단위: %(명)	
구분	전체
아버지	64.0
베이비시터	16.0
어린이집	12.0
지인	6.0
입주도우미	2.0
계	100.0(50)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을 가장 많이 도와주는 유형을 물어본 결과, 외할머니가 44.0%로 가장 많았으며 친할머니가 30.8%, 아버지가 10.2%를 차지했다. 반면 가사도우미나 육아도우미, 어린이집에서 양육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8%를 차지해 대부분 가족과 친인척이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8-5 참조).

〈표 III-8-5〉 자녀양육을 도와주는 사람

단위: %(명)	
구분	전체
외할머니	44.0
친할머니	30.8
아버지	10.2
친인척	4.1
아기를 전담해서 돌보는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이웃탁아모, 보모 등)	3.0
어린이집	2.3
친할아버지	1.5
파출부 등 가사를 주로 담당하는 가사 도우미	1.5
외할아버지	0.8
기타	1.9
계	100.0(266)

나. 육아지원정책 특성

2010년 부가조사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육아지원정책, 직장에서 실시하는 육아지원제도, 그리고 바람직한 육아지원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육아지원정책

2010년 현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 중 부가조사의 연구 대상에 적용되는 정책으로는 육아지원비, 보육료지원, 고운맘카드, 난임부부지원 및 맞벌이부부 보육료지원 확대가 있다. 각각의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 이용여부, 임신과 출산에 미친 영향, 앞으로의 임신과 출산에 미칠 영향의 4단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가) 육아지원정책의 인지여부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육아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0 부가조사에서 이런 다양한 정책을 이용자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다음 <표 III-8-6>에 제시하였다. 조사 대상의 거의 대부분인 99.7%가 고운맘카드의 시행을 인지하고 있었고, 보육·교육료 지원은 대상자의 80%정도가 시행

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른 정책의 시행에 대하여는 조사 대상의 과반수는 인지하고 있고, 반은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6〉 육아지원정책의 인지여부

단위: %(명)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인지	비인지	인지	비인지	인지	비인지	인지	비인지		
육아지원비	45.3	54.7	39.5	60.5	49.0	51.0	38.3	61.6	52.9	47.1
계	100.0(730)		100.0(281)		100.0(449)		100.0(380)		100.0(350)	
χ^2			6.29*				15.32***			
보육교육료지원	79.9	20.1	76.9	23.1	81.7	18.3	71.6	28.4	88.9	1.1
계	100.0(730)		100.0(281)		100.0(449)		100.0(380)		100.0(350)	
χ^2			2.55				33.82***			
고운맘카드	99.7	0.3	100.0	0	99.6	0.4	99.7	0.3	99.7	0.3
계	100.0(730)		100.0(281)		100.0(449)		100.0(380)		100.0(350)	
χ^2			na				na			
난임부부지원	53.2	46.8	56.9	43.1	50.8	49.2	52.6	47.4	53.7	46.3
계	100.0(730)		100.0(281)		100.0(449)		100.0(380)		100.0(350)	
χ^2			2.63				0.09			
맞벌이부부 보육료지원 확대	41.4	58.6	42.7	57.3	40.5	59.5	36.8	63.2	46.3	53.7
계	100.0(730)		100.0(281)		100.0(449)		100.0(380)		100.0(350)	
χ^2			.34				6.70*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통계적 차이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 $p < .05$. *** $p < .001$.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들의 육아지원정책 인지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χ^2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육아지원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어머니들이 취업 중인 어머니들보다 육아지원비 정책의 시행을 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부 보육료지원 확대의 경우, 취업모들 중 반 이하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모취업에 따른 인지여부에 차이가 없었다.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어머니들의 육아지원정책 인지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χ^2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다섯 가지 육아지원정책 중 세 가지 정책의 시행에 대한 인지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출생 순위가 둘째 이상인 어머니들이 자녀가 첫째인 어머니들보다 육아지원비, 보육·교육료 지원, 맞벌이부부 보육료지원 확대의 정책 시행을 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육아지원정책의 이용여부

육아지원정책의 시행을 인지하고 있는 조사 대상자들에게 그 이용여부를 질문한 결과의 분석은 <표 III-8-7>에 제시하였다.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정책은 고운맘 카드로서, 고운맘 카드의 시행을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 중 97.4%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정책들은 인지는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표 III-8-7> 육아지원정책의 이용여부

단위: %(명)

구분	부가조사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육아지원비	10.9	89.1	5.4	94.6	3.9	86.1	5.5	94.5	15.1	84.9
계	100.0(331)		100.0(111)		100.0(223)		100.0(146)		100.0(185)	
χ^2	5.16*				7.85**					
보육·교육료지원	7.2	92.8	6.5	93.5	7.6	92.4	2.2	97.8	11.6	88.4
계	100.0(583)		100.0(216)		100.0(367)		100.0(272)		100.0(311)	
χ^2	.27				19.01***					
고운맘카드	97.4	2.6	97.2	2.8	97.5	2.5	98.2	1.8	96.6	3.4
계	100.0(728)		100.0(281)		100.0(447)		100.0(379)		100.0(349)	
χ^2	.10				1.81					
난임부부지원	2.8	97.2	1.9	98.1	3.5	96.5	4.0	96.0	1.6	98.4
계	100.0(388)		100.0(162)		100.0(227)		100.0(199)		100.0(189)	
χ^2	0.82				2.08					
맞벌이부부 보육료지원 확대	1.3	98.7	2.5	97.5	0.6	99.4	0.7	99.3	1.9	98.1
계	100.0(301)		100.0(120)		100.0(181)		100.0(139)		100.0(162)	
χ^2	2.88				na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통계적 차이 검증이 불가능을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들이 인지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의 이용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χ^2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육아지원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취업 중인 어머니들이 취업하고 있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육아지원비 정책을 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부 보육료지원 확대의 경우, 정책 이용자에 해당하는 취업모의 이용비율은 2.6%에 그쳤다.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어머니들의 육아지원정책 이용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를 χ^2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육아지원비과 보육·교육료 지원의 이용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출생 순위가 둘째 이상인 어머니들이 자녀가 첫째인 어머니들보다 육아지원비과 보육·교육료 지원을 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의 인지여부와 이용여부 결과를 요약하면, 육아지원비 정책의 경우, 비취업모들이 육아지원정책을 더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용은 취업모들이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둘째 자녀 이상의 어머니들이 육아지원정책의 시행에 대해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다) 육아지원정책이 임신과 출산에 미친 영향

2010년 현재 실행 중인 육아지원정책을 인지하여 이용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한 육아지원정책이 이번 임신과 출산에 미친 영향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평정하게 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8-8>과 같다.

육아비 지원이 이번 임신과 출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하여 78.4%인 반면, '그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는 합하여 8.2%였다. 보육·교육료 지원이 이번 임신과 출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하여 60.0%이었고, '그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는 합하여 22.5%였다. 고운맘 카드가 이번 임신과 출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하여 38.3%, '그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는 합하여 36.9%였다. 난임부부지원이 이번 임신과 출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하여 57.0%인 반면, '그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는 합하여 19.2%였다. 맞벌이부부 보육료지원 확대가 이번 임신과 출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하여 57.8%이었고, '그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합하여 17.8%였다.

전체 조사 대상의 이번 임신과 출산에 미친 육아지원정책 중 그렇다에 비율이 높은 정책의 순서는 고운맘 카드 36.6%, 난임부부 16.5%, 보육·교육료지원 13.7%, 맞벌이 9.9%, 육아지원비 5.1%이었다. 영향력에서 '아니다'에 비율이 높은 정책의 순서는 육아지원비 45.5%, 고운맘 카드 38.0%, 보육·교육료지원 36.6%, 맞벌이 32.1%, 난임부부 33.4%이었다.

〈표 III-8-8〉 육아지원정책이 임신과 출산에 미친 영향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육아 지원비	부가조사	59.6	18.8	13.5	4.8	3.4	100.0(208)
	모취업						
	취업모	65.8	21.1	10.5	-	2.6	100.0(76)
	비취업모	56.1	17.4	15.2	7.6	3.8	100.0(132)
	출생순위						
첫째	70.4	19.4	8.2	1.0	1.0	100.0(98)	
둘째이상	50.0	18.2	18.2	8.2	5.5	100.0(110)	
보육· 교육료 지원	부가조사	41.1	18.9	17.5	11.0	11.5	100.0(355)
	모취업						
	취업모	52.2	18.7	14.2	7.5	7.5	100.0(134)
	비취업모	34.4	19.0	19.5	13.1	14.0	100.0(221)
	출생순위						
첫째	42.4	23.0	18.2	10.3	6.1	100.0(165)	
둘째이상	40.0	15.3	16.8	11.6	16.3	100.0(190)	
고운맘카 드	부가조사	11.8	26.5	24.8	22.2	14.7	100.0(721)
	모취업						
	취업모	15.2	25.2	25.2	21.1	13.3	100.0(270)
	비취업모	9.8	27.3	24.6	22.8	15.5	100.0(451)
	출생순위						
첫째	11.1	25.9	23.5	23.5	16.1	100.0(379)	
둘째이상	12.6	27.2	26.3	20.8	13.2	100.0(342)	
난임 부부 지원	부가조사	50.9	6.1	14.9	17.5	10.5	100.0(228)
	모취업						
	취업모	59.6	5.1	16.2	15.2	4.0	100.0(99)
	비취업모	44.2	7.0	14.0	19.4	15.5	100.0(129)
	출생순위						
첫째	48.3	5.9	15.3	19.5	11.0	100.0(118)	
둘째이상	53.6	6.4	14.5	15.5	10.0	100.0(110)	
맞벌이부 부 보육료지 원 확대	부가조사	42.9	14.9	24.4	10.1	7.7	100.0(168)
	모취업						
	취업모	40.3	19.4	26.9	6.0	7.5	100.0(67)
	비취업모	44.6	11.9	22.8	12.9	7.9	100.0(101)
	출생순위						
첫째	40.5	17.9	23.8	10.7	7.1	100.0(84)	
둘째이상	45.2	11.9	25.0	9.5	8.3	100.0(84)	

요약하자면, 2010년 현재 조사 대상자들이 이용한 육아지원정책 중 이번 임신과 출산에 가장 영향을 미친 정책은 고운맘 카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향이

있다'와 '없다'의 비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30%에서 40%대로 거의 동일하였다. 그 밖의 다른 정책들은 영향이 '매우 그렇다'와 '그저 그렇다'를 더한 비율이 10%이하에서 30%에 분포한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저 그렇다'를 더한 비율이 20%에서 60%대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대상자의 모든 특성에 걸쳐 동일하였다.

라) 육아지원정책이 후속 임신과 출산에 미칠 영향

2010년도 부가조사를 위한 전화조사를 통하여 조사 대상자들이 2010년 현재 실행 중인 육아지원정책을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전화조사에 응한 응답자 중 후속 임신과 출산을 계획 중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육아지원정책이 후속 임신과 출산에 미칠 영향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8-9>와 같다.

육아비지원이 후속 임신과 출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하여 51.9%인 반면, '그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는 합하여 31.8%였다. 보육·교육료 지원이 후속 임신과 출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하여 34.5%이었고, '그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는 합하여 42.8%였다. 고운맘 카드가 후속 임신과 출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하여 31.5%, '그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는 합하여 46.7%였다. 난임부부지원이 후속 임신과 출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하여 20.8%인 반면, '그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는 합하여 57.9%였다. 맞벌이부부 보육료지원 확대가 후속 임신과 출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하여 21.3%이었고, '그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는 합하여 58.7%였다.

전체 조사 대상의 후속 임신과 출산에 미칠 육아지원정책 중 '그렇다'에 비율이 높은 정책의 순서는 맞벌이부부 보육료지원 확대 58.7%, 난임부부지원 57.9%, 고운맘 카드 46.7%, 보육·교육료지원 42.8%, 육아비지원 31.8%이었다. 영향력에서 '아니다'에 비율이 높은 정책의 순서는 육아비지원 51.9%, 보육·교육료 지원 34.5%, 고운맘 카드 31.5%, 맞벌이부부 보육료지원 확대 21.3%, 난임부부 지원 20.8%이었다.

〈표 III-8-9〉 육아지원정책이 후속 임신과 출산에 미칠 영향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육아 지원비	부가조사	27.1	24.8	16.4	19.2	12.6	100.0(214)
	모취업						
	취업모	37.9	22.7	9.1	22.7	7.6	100.0(66)
	비취업모	22.3	25.7	19.6	17.6	14.9	100.0(148)
	출생순위						
	첫째	25.7	26.3	17.5	18.1	12.3	100.0(171)
둘째이상	32.6	18.6	11.6	23.3	14.0	100.0(43)	
보육/ 교육료 지원	부가조사	15.4	19.1	22.8	23.7	19.1	100.0(325)
	모취업						
	취업모	23.7	22.8	18.4	21.1	14.0	100.0(114)
	비취업모	10.9	17.1	25.1	25.1	21.8	100.0(211)
	출생순위						
	첫째	14.9	19.2	24.3	23.1	18.4	100.0(255)
둘째이상	17.1	18.6	17.1	25.7	21.4	100.0(70)	
고운맘 카드	부가조사	8.9	22.6	21.8	24.4	22.3	100.0(394)
	모취업						
	취업모	12.0	24.0	20.0	26.0	18.0	100.0(150)
	비취업모	7.0	21.7	23.0	23.4	25.0	100.0(244)
	출생순위						
	첫째	9.7	22.6	19.7	25.8	22.3	100.0(310)
둘째이상	6.0	22.6	29.8	19.0	22.6	100.0(84)	
난임 부부 지원	부가조사	13.4	7.4	21.3	29.7	28.2	100.0(202)
	모취업						
	취업모	17.3	10.7	22.7	30.7	18.7	100.0(75)
	비취업모	11.0	5.5	20.5	29.1	33.9	100.0(127)
	출생순위						
	첫째	11.9	8.8	21.4	29.6	28.3	100.0(159)
둘째이상	18.6	2.3	20.9	30.2	27.9	100.0(43)	
맞벌이 부부 보육료 지원 확대	부가조사	10.1	11.2	19.9	30.1	28.6	100.0(276)
	모취업						
	취업모	11.0	11.8	16.9	32.4	27.9	100.0(136)
	비취업모	9.3	10.7	22.9	27.9	29.3	100.0(140)
	출생순위						
	첫째	9.9	10.3	20.2	28.7	30.9	100.0(223)
둘째이상	11.3	15.1	18.9	35.8	18.9	100.0(53)	

요약하자면, 2010년 현재 후속 임신과 출산 계획이 있는 조사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맞벌이부부 보육료지원 확대와 난임부부지원을 후속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 정책으로 인지하였다. 그 밖의 다른 정책들은 영향이 '매우 그렇다'와 '그저 그렇다'를 더한 비율이 30%에서 40%에 분포하였다. 또한 절반 정도의 대상자가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책으로 육아비지원을 인지하였다. 그 밖의 다른 정책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저 그렇다'를 더한 비율이 20%에서 30%대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대상자의 모든 특성에 걸쳐 동일하였다.

2)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2010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에서는 직장에 다니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직장에서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육아지원제도와 이용하고 있는 육아지원제도 대하여 중복응답하도록 하였다. 2010년 현재 직장에서 시행 가능한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는 휴가 및 휴직(여성의 출산휴가, 여성의 육아휴직) 보육지원(직장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모성보호(수유실 설치, 유급수유시간), 및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시차 출근제, 대체인력풀 운영, 육아기 근로단축시간)이다. 각 제도의 시행여부 및 이용여부에 대한 취업모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I-8-10>, <표 III-8-11>과 같다.

가) 직장육아지원제도의 시행여부

조사 대상 중 취업모들이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장에서 출산휴가(95.6%)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육아휴직(86.5%)과 대체인력풀 운영(61.8%)이었다. 다른 제도는 시행비율이 10~20%에 불과하였다. 한국아동패널 2008의 1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보육지원을 제외한 모든 제도의 시행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육아휴직의 시행비율은 14.5% 증가하였고, 대체 인력풀 운영은 18.4%에서 61.8%로 증가하여 시행비율이 43.4%로 괄목하게 증가하였다. 육아휴직 관련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지원에 대한 개정 규정이 2008년 6월 말 이후에 적용되었다. 즉, 개정 규정이 적용된 지 얼마 안 되어 2008년 1차년도 조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적용과 실시 사이의 짧은 시간 간격이 1차년도 결과인 대체 인력풀 운영의 저조한 시행비율을 설명할 수 있다.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 대체인력풀 운영이 증가하였더라도 여전히 출산과 육아휴직의 시행 비율에는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어머니의 직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χ^2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육아지원제도의 시행비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제도는 없었다.

〈표 III-8-10〉 직장육아지원제도의 시행여부(중복응답)

단위: %

구분	1차 년도	부가 조사	출생순위						χ^2
			첫째			둘째이상			
			시행	미시행	모름	시행	미시행	모름	
휴가 및 휴직									
여성의 출산휴가	96.3	95.6	96.2	3.8	-	94.8	4.1	1.0	na
여성의 육아휴직	72.5	86.5	85.6	11.4	3.0	87.6	10.3	2.1	na
보육지원									
직장 어린이집	14.7	12.7	14.4	84.1	1.5	10.3	88.7	1.0	na
보육비 지원	25.2	23.1	16.7	75.0	8.3	31.0	63.9	4.1	na
모성보호									
수유실 설치	19.6	20.2	19.8	77.9	2.3	20.6	77.3	2.1	na
유급 수유시간	19.8	26.3	26.0	60.3	13.7	26.8	62.9	10.3	0.61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시차 출근제	21.2	28.5	29.8	62.6	7.6	26.8	66.0	7.2	0.29
대체인력풀 운영	18.4	61.8	61.8	33.6	4.6	61.9	37.1	1.0	na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na	25.0	24.4	62.6	13.0	25.8	62.9	11.3	0.16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통계적 차이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나) 직장육아지원제도의 이용여부

직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각각의 이용여부를 질문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취업모들이 출산휴가(95.4%)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84.4%의 취업모가 대체인력풀을, 64.6%가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조하게 이용되고 있는 제도는 취업모의 13.8%가 이용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었고, 다른 제도의 이용률은 30% 정도로 나타났다. 한국아동패널 2008의 1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대체 인력풀의 이용률이 20% 증가하였고, 보육비 지원의 이용률은 29.3%, 수유실 이용은 15.7%, 유급 수유시간의 이용률은 13.8% 감소하였다. 대체 인력풀의 이용률의 증가는 직장에서 대체 인력풀의 시행률의 증가 및 육아휴직 시행률과 이용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육아휴직 이용률의 증가는 직장보육시설 이용의 감소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2008년도 1차 조사 참여자 중 취업모 가구의 16.8%가 소득

이 401만원 이상인 반면,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는 참여자 중 취업모 가구의 48.5%가 401만원 이상이었으므로, 보육비 지원 이용률의 감소는 2010년도 부가조사 대상자 중 취업모 가구의 소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취업모가 직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육아지원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χ^2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자녀의 출생 순위가 둘째 이상인 어머니들이 자녀가 첫째인 어머니들보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11〉 직장육아지원제도의 이용여부(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부가조사	출생순위				χ^2
			첫째		둘째이상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휴가 및 휴직							
여성의 출산휴가	97.3	95.4	96.9	3.1	93.5	6.5	1.40
여성의 육아휴직	57.6	64.6	66.4	33.6	62.4	37.6	0.34
보육지원							
직장 어린이집	20.5	13.8	10.5	89.5	20.0	80.0	na
보육비 지원	61.4	32.1	31.8	68.2	32.3	67.7	0.00
모성보호							
수유실 설치	50.5	34.8	30.8	69.2	40.0	60.0	0.43
유급 수유시간	47.1	33.3	35.3	64.7	30.8	69.2	0.14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시차 출근제	37.5	38.5	33.3	66.7	46.2	53.8	1.08
대체인력풀 운영	64.4	84.4	85.2	14.8	83.3	16.7	0.09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na	29.8	18.8	81.3	44.0	56.0	4.28*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통계적 차이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 $p < .05$.

2008년도에 실시된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조사와 2010년도에 실시된 부가조사 사이에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이 2009년 9월에 발표, 실시되고 있다. 이에 의해 육아휴직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7.12.31 이전 출생자는 1세 미만)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것으로(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상향 조정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제도를 강화하였다.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 육아휴직의 이용률이 미비하지만 중

가한 것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의 정책 효과라고 추정할 수 있으나, 부가조사는 제2차 계획의 정책 시행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조사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요구된다.

3) 정책의 방향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의 인지와 이용여부 및 임신·출산에 대한 영향,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이용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후, 바람직한 육아지원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를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바람직한 육아정책 방향

(1) 출산에 도움이 되는 정책

“자녀 출산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항의 각 항목에 대한 결과는 <표 III-8-12>와 같다.

출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대상 어머니의 61.5%가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일하는 부모를 위한 출산·양육지원이 21.3%로 그 뒤를 이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출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정책의 순위가 전체 분석 결과와 동일하였다. 취업모의 51.9%와 비취업모의 67.2%가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을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응답하여,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신생아 장애예방, 교육비·교육비, 양육수당, 아이돌보미 지원 등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을 출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선택하였다. 취업모의 36.7%와 비취업모의 12.3%는 일하는 부모(맞벌이)를 위한 출산·양육지원을 출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응답하여,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약 3배 정도 많이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출산·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등 일하는 부모를 위한 출산·양육지원을 출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고려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사료된다.

〈표 III-8-12〉 출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

단위: %(명)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 (신생아 장애예방, 교육비·교육비, 양육수당, 아이돌보미 지원 등)	61.5	51.9	67.2	58.6	64.6
임산부를 위한 지원 (난임부부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확대, 산모 도우미 서비스, 출산·양육 정보 및 상담 서비스 등)	8.3	6.7	9.2	9.5	6.9
일하는 부모(맞벌이)를 위한 출산·양육지원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출산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21.3	36.7	12.3	24.9	17.4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다자녀 추가 공제제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다자녀 우대카드,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6.6	4.1	8.1	3.7	9.7
다양한 가정을 위한 지원 (신혼부부 가정, 입양아 및 장애아 가정, 농어업민 가정)	2.3	0.7	3.3	3.2	1.4
계	100(727)	100(270)	100(457)	100(377)	100(350)

<표 III-8-12>에서 보듯이, 대상 아동의 출생 순위에 따라서는 대상 아동이 첫째인 경우 어머니의 58.6%, 대상 아동이 둘째이상인 경우 어머니의 64.6%가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을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가장 도움이 된다고 선택된 정책은 첫째 어머니의 24.9%와 둘째 이상 어머니의 17.4%가 응답한, 일하는 부모(맞벌이)를 위한 출산·양육지원이었다. 세 번째로 많이 선택된 정책에서는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어머니의 경우 9.5%가 임산부를 위한 지원을, 둘째 이상 어머니의 경우 9.7%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을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선택하였다. 이 결과 역시 응답자들이 자신들이 상황을 고려하여 출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2010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에서 대상 아동이 첫째라 함은 자녀가 하나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녀가 한 명이 있는 어머니들은 후속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난임부부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확대, 산모 도우미 서비스, 출산·양육 정보 및 상담 서비스 등 임산부를 위한 지원을 선택한 반면, 자녀가 둘 이상 있는 어머니들은 다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다자녀 추가

공제제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다자녀 우대카드,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등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을 선택하였다.

(2) 정책 요구

위의 지원정책 외에 출산과 육아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는 조사 대상 어머니들이 자유로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장 많이 언급된 정책은 예방접종 중 선택예방접종비의 지원으로 조사 대상자의 27.2%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보육료 지원확대 및 무상지원, 고운맘카드의 지원확대(금액상향 및 일일한도액 폐지), 소득에 따른 차등정책이 아닌 중산층 맞벌이 가정에 동일하게 지원되는 정책 및 직장에서의 출산육아관련 정책 시행의 강화가 출산과 육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참고문헌

신나리·안재진·이정림·송신영·김영원(2008). **한국아동패널 2008**.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조복희·신나리·안재진·이정림·최윤경·송신영 외(2009). **한국아동패널 2009**.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부 록

부록 1. 면접원 교육 자료

부록 2. 조사 참여자 선물

부록 3. 부가조사 소개 자료(산모용)

부록 4. 병원면접용 질문지

부록 5. 전화조사용 질문지

부록 6. 질문지 원도구 출처목록

부록 1. 면접원 교육 자료



『2010년 출생 아동 가구』 조사
면접원 교육 자료

2010. 4.



1. 조사 개요

1. 육아정책연구소 소개

- 우리나라 육아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육아관련 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5년 12월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임.
-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와 육아지원 프로그램개발 및 교재개발, 육아지원기관 평가관련 연구, 육아지원 인력의 자격제도와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를 담당하면서, 육아정책 관련 국내외 정보 교류활동과 국제적 협동 연구를 수행하고, 기타 육아정책 사업 등을 지원함.

2. 한국 아동 패널 조사 소개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을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함으로써, 각 시기에 발생하는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 양육실태와 요구, 육아지원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의 기능과 효과 및 지역사회와 육아정책의 영향에 관한 종단적 자료(시계열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2010년 출생 아동 가구 조사 소개

『2010년 출생 아동 가구 조사』는 2010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 1,000사례를 대상으로 아동의 출생전후 환경, 즉 임신 중 어머니의 신체적·정서적·심리적 특성과 자녀에 대한 태도, 아동의 출생 및 양육에 관련된 정책적 환경을 주요 조사 내용으로 함. 출생 시기에 따라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 발달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흐름과 부모의 특성 및 태내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횡단적 자료를 구축하여 시기에 맞는 육아정책 수립에 기여하며, 2008년도 제 1차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 분석된 주요 내용들과 그 추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조사 방법

1. 『2010년 출생 아동 가구 조사』 연구 모집단 및 표집 과정

- 연구 모집단: 2010년 4월~7월에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출생하는 신생아 가구
- 표집 과정: 『한국아동패널 2008』 연구에서 무선 표집 된 병원들 중 28개의 병원을 선정 → 협조 공문 발송 및 협조 요청 → 협력 교수진이 해당권역 병원 사전 방문 및 협조 요청 → 2010년 4월 26일 ~ 7월 9일 사이 면접원이 대상 병원을 방문하여 산모 접촉 → 신생아 가구 1,000 사례 추출 및 조사 실시

2. 조사방법

1) 조사 방식:

- (1) 산부인과 방문 면접 조사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는 면접 (*붙임 1 참조)
- (2) 가구 전화 조사 (4개월 이후): 육아정책연구소 자체 조사

2) 면접 대상 : 출산 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해당 병원 부속 산후조리원에 있는 산모들 (단, 산후조리원에 있는 산모는 해당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 함)

3) 면접 장소 : 해당 병원의 입원실 또는 산후조리원 (*붙임 2 참조)

4) 소요 시간 : 일인당 약 20분

5) 면접 조사 기간 : 2010년 4월 ~ 7월 사이 주 2회 병원 방문

(3~4일 간격으로 방문하여 1주일 동안 출산한 모든 산모를 접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6) 면접원 사례 : 사례별 6,000원(면접 및 코당비 포함) + 지역별 교통비(실비 기준)

III. 조사 실시 지침

1. 면접 조사 시

1) 준비물

- 질문지 : 사전에 개별 대상 ID 기재하여 준비
- 필기도구

- 답례품
 - 이름표
- 2)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급한 이름표 착용
 - 3) 면접원 본인 소개: 학교, 이름, 육아정책연구소 등
 - 4) 면접 후 면접 소요 시간을 기입해야 하므로 면접 시작 시간 기록

2. 면접 조사 후

- 1) **면접 후 2일 이내**, 아래의 담당 연구진에게 이메일로 조사 내용을 전송
(○○○ 연구원 (02) 398-XXXX, abcde01@email.com)
- 2) 최종 면접 조사를 완료 후, 원자료(질문지)를 체크하여 육아정책연구소로 수신자 부담 택배로 발송.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10층 육아정책연구소
2010년 출생 아동 가구 조사 연구진 ○○○ 연구원

※ 질문지 수거 후, 연구소에서 편칭에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3. 면접 자료 조사 일정

일정	수행 계획	비고
4.23(금), 5.1(토)	· 면접원 교육	· 장소: 육아정책연구소 회의실 · 면접원은 하루만 참석하면 됨
4.26~7.9	· 부가 조사 면접 진행	· 면접 후 2일 이내, ○○○(abcde01@email.com) 연구원에게 전송
7.12	· 부가 조사 자료 수집 완료	· 자료 수집 완료 후 질문지를 수신자 부담 택배로 발송

4. 면접용 질문지 소개

- 1) 구성

영역	변인
신생아 특성	인구학적 특성, 건강 특성
임신 및 출산	임신관련 특성, 출산관련 특성, 태내 환경, 태교
어머니 특성	인구학적 특성, 건강 특성, 직업계획, 산전 정서 상태

2) 응답 기록 방법 : 면접원이 직접 기입 (산모에게 말기지 말 것)

5. 면접 조사원 역할 및 조사 지침

- 1) 조사 대상자가 출산 후 입원하여 산후조리 중인 산모이므로 신체적,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각별히 언행에 조심할 것
- 2) 병실에 입원 중인 다른 산모들을 배려
- 3) 복장을 단정히
- 4) 병원별 담당자와 미리 협의한 시간에 방문할 것
- 6) 면접 조사이므로 산모 또는 간호사가 작성하지 않도록
- 7) 4개월 후 전화조사를 위한 정보 수집 시, 정확성을 기할 것 (받아 적은 후 다시 한번 확인 요망)
- 8) 면접원은 이번 한 번으로 조사가 끝나지만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4개월 후 전화조사를 해야 하므로 좋은 인상을 주도록 노력
- 9) 병원 측의 협조가 조사 성공에 가장 큰 요인이므로 병원에 불만이 접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 조사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산모에게 조사 진행을 강요하지 말 것.
- 10) 의문 사항에 대해 절대 자체 판단하지 말고 육아정책연구소의 ○○○ 연구원에게 (02-398-XXXX, 010-XXXX) 문의

IV. 권역별 배정 병원

권역	소재지	명칭	모집 인원	담당자
서울권 (5기관)	영등포구	의료법인성애병원	16	박성연 (이화여자대학교)
	양천구	기쁜소식산부인과	15	
	송파구	고은빛산부인과	22	
	강북구	햇빛여성병원	66	
	은평구	인정병원	39	
경인권 (4기관)	시흥시	중앙산부인과의원	22	신유림 (가톨릭대학교)
	이천시	마리나산부인과의원	46	
	안양만안구	필산부인과의원	16	
	수원팔달구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22	
경인권 (4기관)	수원영통구	삼성여성병원	24	황혜정 (경기대학교)
	고양일산동구	동원산부인과의원	69	
	성남분당구	분당차병원	75	
	인천남동구	의료법인 길병원	33	
충청권 (3기관)	대전서구	학교법인 을지대학병원	46	나종혜 (한남대학교)
	청주시	모태안여성병원	30	
	천안시	연세앙즈로산부인과의원	37	
강원권 (1기관)	강릉시	강릉아산병원	13	곽혜경 (한중대학교)
경북권 (3기관)	대구남구	대구가톨릭대학병원	20	김춘경 (경북대학교)
	대구달서구	미즈맘여성병원	82	
	구미시	에바미래산부인과 (구 미래아이산부인과)	35	
경남권 (5기관)	부산동구	좋은문화병원	27	박혜원 (울산대학교)
	부산사하구	그레이스여성병원 (구 한사랑산부인과소아과병원)	48	
	진주시	보람산부인과의원	18	
	진주시	가야자모병원	25	
	울산시	인석의료재단보람병원	55	
전라권 (3기관)	광주동구	전남대학교병원	15	이숙 (전남대학교)
	전주완산구	미르산부인과의원	30	
	순천시	현대병원	51	

한국아동패널 2010년 부가조사 면접원 교육 일정표

- ▶ 일시 : 2010년 4월 23일 (금) 14:00-17:00
(또는 5월 1일 (토) 10:00-13:00)
- ▶ 장소 : 육아정책연구소 회의실

시 간	일 정	강 사
14:00-14:15 (10:00-10:15)	• 연구진과 면접원 소개, 인사말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14:15-14:30 (10:15-10:30)	• 한국아동패널과 부가조사 개요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14:30-15:20 (10:30-11:20)	• 면접용 질문지 교육 (면접 조사원 역할 및 조사 지침 포함)	왕영희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원)
15:20-15:30 (11:20-11:30)	휴 식	
15:30-16:30 (11:30-12:30)	• 면접 실습	이정원, 김진경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16:30-16:45 (12:30-12:45)	• 데이터 입력 교육	이예진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원)
16:45-17:00 (12:45-13:00)	• 질의 응답 정리 및 폐회	

주: 시간의 괄호 안은 5월 1일(토)

부록 2. 조사 참여자 선물

가. 병원조사 답례품



나. 병원조사 답례품



2004. 서울: 애플비.

다. 전화조사 답례품



2010. 서울: 애플비.

부록 3. 부가조사 소개 자료(산모용)

2010년 출생 아동 가구 대상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체계적이며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육아관련 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소 소속 국가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와 영유아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과 보육시설 평가 관련 연구, 육아지원인력의 자격제도와 교사교육 프로그램개발연구를 담당하고, 육아정책관련국내외 정보 교류활동과 국제 협동연구를 수행합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국가수준의 신생아 종단 연구인 「한국아동패널」을 국내 최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에 산모께서 참여하게 될 「**2010년 「출생 아동 가구 조사」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기초연구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환경 설계를 위한 육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아기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임신과 출산 관련 특성, 태교 등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본 연구소에서 훈련받은 면접 조사원이, 본 연구소 선정 병원에서 출산 후 입원 중인 산모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실시합니다. **조사 소요 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신 신생아 가구에는 답례품으로써 영아용 초점책(8,500원 상당)**을 준비했습니다.

본 조사에 참여하시는 산모 **개인에 대한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보다 나은 육아환경 발전과 육아정책 개발을 위하여 많은 협조 바라며,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10층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02-730-7713, 733-7766, 730-7739)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부록 4. 병원면접용 질문지



ID

2010년 출생 아동 가구 조사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 출생 아동 가구 대상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2010년 출생 아동 가구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신생아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기초연구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 환경 설계를 위한 육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귀하 **개인에 대한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으니**, 귀하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10층

『2010년 출생 아동 가구 조사』 연구팀

(02-730-7713, 730-7766, 730-7739)

1) 출산 예정일	월 일	2) 실제 출산일	월 일
3) 아동 성별	① 남 ② 여	4) 출생시 몸무게	()kg
5) 출생시 키	()cm	6) 출생 머리둘레	()cm
7) 출생 서열 (해당 아기 포함)	()남 ()녀 ①첫째 ②둘째 ③셋째 ④넷째 ⑤다섯째 이상		

육아정책연구소

7. 귀하(산모)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태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모든 문항에 ①로 응답한 경우 10번 문항으로

	전혀 하지 않았다	거의 하지 않았다	가끔 하였다	자주 하였다	항상 하였다
1) 태담태교(책읽기, 태아에게 말하기 등)	①	②	③	④	⑤
2) 음악태교(음악 감상, 풍요 들고 부르기 등)	①	②	③	④	⑤
3) 음식태교(음식조절, 영양제 섭취, 커피 제한 등)	①	②	③	④	⑤
4) 놀이 또는 활동태교(아기 모습 상상하기, 태고놀이, 공작 등)	①	②	③	④	⑤
5) 시각태교(좋은 그림 보기, 전시회 관람 등)	①	②	③	④	⑤
6) 운동태교(요가, 산책 등)	①	②	③	④	⑤
7) 언행태교(좋은 생각, 말하기, 미워하지 않기 등)	①	②	③	④	⑤
8) 학습태교(외국어, 숫자 공부 등) : _____	①	②	③	④	⑤
9) 심리력 안정(기도, 명상 등)	①	②	③	④	⑤
10) 창작(실자수, 필트 등)	①	②	③	④	⑤
11) 기타()	①	②	③	④	⑤

7.1. 귀하께서 주로 태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분)은 어디입니까?

- ① 태교에 관한 책이나 강의 ② 인터넷 ③ TV 등 방송 매체 ④ 배우자(또는 동거자) ⑤ 친정부모님
⑥ 시부모님 ⑦ 친인척 ⑧ 의료기관 ⑨ 친구나 이웃 ⑩ 기타()

7.2. 태아에게 태교를 실시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모두 √ 표 해주세요.

- ① 산모 ② 배우자(또는 동거자) ③ 친정부모님 ④ 시부모님 친인척 ⑥ 친구나 이웃
⑦ 기타()

7.3. 태아에게 태교를 시작하신 시기는 언제이십니까?

- ① 결혼 직후부터 ② 임신을 준비하면서부터 ③ 임신사실을 알고 난 직후부터 ④ 태동을 느낀 다음부터
⑤ 기타()

7.4. 태아에게 태교를 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1번 문항으로

- ① 태아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② 태아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③ 태아의 두뇌발달을 위해서
④ 태교 내용을 출산 후 태아에게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⑤ 주변 사람들이 권해서
⑥ 주변 산모들이 모두 하는 것 같아서 ⑦ 기타()

8. 귀하께서 특별히 태교를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정보가 없어서 ②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③ 시간이 없어서 ④ 귀찮아서
⑤ 위 아이에게 해 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⑥ 기타()

다음은 귀하(산모)의 임신 중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9. 귀하(산모)의 임신 중 영양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 ① 정상 ② 과다 ③ 실조

10. 다음의 항목은 어떠하십니까? 아래 왼쪽의 보기 중 해당하는 문항의 정도에 표 해주십시오

1) 출혈(경도)	① 전혀 없었다	② 거의 없었다	③ 약간 있었다	④ 많이 있었다	⑤ 매우 많이 있었다
2) 흡연	①안 피운다	②피운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루 _번	하루 _개비
3) (아버지 포함) 주위의 흡연	①안 피운다	②피운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루 _번	하루 _개비
4) 음주	①안 마신다	②마신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달 _번	평균 ___컵
5) 약(물) 복용(의사가 허용한 약물 제외)	①안 하였다	②하였다			
6) 질병 (당뇨, 혈압 등)	①없었다	②있었다			
7) 본인의 입원 (출산을 위한 입원 제외)	①없었다	②있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___ 일	
8) 환경오염물질에의 노출(수은, 납, 방사선 등)	①없었다	②있었다			
9) 기타()					

11. 귀하(산모)의 임신 중 겪은 사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귀하께서 느끼신 스트레스의 정도에 표 해주십시오. ※ 경험 여부에 표시할 경우 다음 문항으로

	경험 여부	전혀 느끼지 않았다	별로 느끼지 않았다	보통이다	약간 느꼈다	많이 느꼈다
1) 배우자(또는 동거자)와의 갈등	①네 ②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2) 친정 혹은 시댁과의 갈등	①네 ②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3) 별거나 이혼	①네 ②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4) 가족의 죽음(동거가족이나 직계가족)	①네 ②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 사고	①네 ②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6) 본인 또는 남편의 실직	①네 ②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7) 가족의 병	①네 ②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8) 경제적인 어려움	①네 ②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9) 이사	①네 ②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10) 기타()	①네 ②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산모)의 양육 특성 및 가치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12. 귀하(산모)께서는 출산 직전 한 달 동안 다음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전혀 안 느꼈다	별로 안 느꼈다	종종 느꼈다	대체로 느꼈다	항상 느꼈다
1) 불안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무기력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안절부절 못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태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3. 이번 임신 중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또는 동거자)께서 바란, 아이의 성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머니 (본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남자	② 여자	③ 바라는 성별이 없었음
아버지 (남편)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남자	② 여자	③ 바라는 성별이 없었음

다음은 귀하와 태아의 건강 및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8. 다음은 귀하(산모)와 관련된 것입니다. 각 란에 체크 혹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생년 월일	2) 신장	3) 임신직전 체중	4) 출산직전 체중	5) 결혼 상태	6) 결혼 시기
()년()월	()cm	()kg	()kg	①유배우 ②별거 ③이혼 ④사별 ⑤미혼	19__년__월

19. 귀하께서는 향후 1년 내에 직장 또는 학업에 복귀하거나 시작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없음
- ② 시간제(주당 평균 29시간 미만)로 근무 또는 학업
- ③ 전일제(주당 평균 30시간 이상)로 근무 또는 학업

20. 아기가 출생 후 신생아 입원실이나 집중치료실(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거나 받았습니까?

- ① 아니오
- ② 황달, 설사 등으로 입원실에서 치료
- ③ 집중치료실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

21-1. (첫 아이인 경우) 이 아기를 낳기 전에 임신한 적이 있습니까? ____ 번

21-2. (위 형제가 있는 경우) 위 형제와 이 아기 사이에 임신한 적이 있습니까? ____ 번

▣ 마지막으로, 약 4개월 이후에 있을 전화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신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조사 가능 여부	① 네	② 아니오
------------	-----	-------

☞ 전화 조사가 가능하다면 귀하의 연락처 등 아래 사항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휴대전화 : - -
집 전화 : - -	배우자 휴대전화 : - -
이메일 :	퇴원 예정일 : 월 일
집 주소 : 시/도 시/군/구 동/읍/면	
1) 산후조리장소 : ① 자택 ② 산후조리원 ③ 친정 ④ 시댁 ⑤ 기타	
산후조리 장소 연락처(유선 또는 핸드폰) : -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면접원은 설문종료 후 아래 사항을 작성 하십시오		
면접원 이름 :	조사일시 : 월 일 시	소요시간 : 분
병원명 :	병원주소 : 시/도 시/군/구 동/읍/면	

부록 5. 전화조사용 질문지



ID

2010년 출생 아동 가구 조사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 출생 아동 가구 대상 질문지(전화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원 _____입니다.
 OO님께서 지난 O월에 _____ 병원에서 『2010년 출생 아동 가구 조사』를 하셨는데 생각나시지요? 먼저, 지난 번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조사 시 협조를 약속해 주셨던 대로, 몇 가지만 전화로 여쭙어 보겠습니다. 병원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에 대한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으니, OO님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이번에 출산하신 아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OO님께서 이번에 출산하신 아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기 이름 : _____

2. 다음은 귀하의 아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4개월 정기검진을 마친 가정만 아기수첩 등의 병원 방문기록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1) 4개월 몸무게	2) 4개월 키	3) 4개월 머리둘레
()Kg	()cm	()cm

3. 귀하께서는 OO를 임신하였을 때 _____ 태교를 하셨다고 대답하셨는데 태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용 조사에서 태교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본 문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① 네 ☞ 3-1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 3-2번 문항으로
- ③ 잘 모르겠음 ☞ 4번 문항으로

3-1. 어떤 점에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3-2. 어떤 점에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다음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4. 지난 번 병원조사에서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 (또는 낳지 않으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신지요?
- ① 낳겠음 ☞ 5번 문항으로
 - ② 낳지 않겠음 ☞ 4-1번 문항으로
 - ③ 잘 모르겠음 ☞ 5번 문항으로
 - ④ 기타

4-1. 더 낳지 않으실 계획인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 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 4-2번 문항으로
- ② 직장/학업 때문에
- ③ 개인시간/여가 또는 자아성취를 위하여
- ④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 ⑤ 나이가 많아서
- ⑥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출산 및 양육 등)
- ⑦ 기타

4-2. 경제적 부담 중에서 다음 중 어느 것이 더 부담이 되세요?

- ① 자녀 양육비용 때문에 (아기 관련 생필품, 유급 도우미 비용 등)
- ② 자녀 교육비용 때문에 (유치원/보육시설/학교 이용비용, 사교육비용 등)

5. (자녀를 둔다면) 딸·아들 구분해서 입니까, 구분 없이 입니까? 아기 아빠의 생각은 어떤가요?

	어머니	아버지
① 딸·아들 구분 없이		
② 딸·아들 구분해서	아들 ___명 / 딸 ___명	아들 ___명 / 딸 ___명
③ 기타		
④ 잘 모르겠음		

6. 귀하는 자녀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내용	선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나타내는 견해를 진술한 것입니다. 귀하는 둘 중 어디에 더 동의하십니까?

- ①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 ②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7-1. 출산 전과 비교해서 부모의 책임에 대한 견해가 달라졌는지요?

7-2.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① 네

출산 전	출산 후
① 희생과 최선	① 희생과 최선
② 부모 자신의 삶	② 부모 자신의 삶
③ 생각해본 적 없음	

② 아니오

다음은 귀 부부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8.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비교적 불만족 ③보통 ④비교적 만족 ⑤매우 만족

다음은 귀하의 아기 및 양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9. 다음은 아기의 특성에 대한 문항입니다. OO가 평소예 대체로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아이는 잘 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음은 아기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를 낳은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5)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음은 아기 양육 시 아기 아빠의 협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편은 아기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남편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다음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얼마나 자주	전혀 안 느낌	별로 안 느낌	조금 느낌	대체로 느낌	항상 느낌
1) 불안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무기력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안절부절 못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매사에 힘이 드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직업/학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귀하는 평소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이나 학업을 하고 계십니까?

- * 계속 일을 해왔으나 질병, 사고 등의 특별한 사유로 잠시 일을 쉬고 있는 경우는 평소에 하는 일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합니다.
- * 가족 사업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보수로 도와주는 경우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포함합니다.
- * 두 가지 보기에 해당하는 경우(직장과 학교 병행 등)는 지난 6개월간 주로 한 것으로 응답하도록 합니다.

- ① 취업중 ☞ 14번 문항으로 ② 휴직중 ☞ 14번 문항으로
- ③ 학업중 ☞ 16번 문항으로 ④ 휴학중 ☞ 16번 문항으로
- ⑤ 전업주부임 (집안일, 무직 포함) ☞ 16번 문항으로
- ⑥ 기타 _____ ☞ 18번 문항으로

14.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14-1. 일하시는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지점이나 공장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 일반 회사인 경우 회사명과 지점명 까지, 교사인 경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 공무원인 경우 중앙부처/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까지(예: ○○전자 ○○공장, ○○초등학교 혹은 서울시청)

직장(사업체)명: _____

- 14-2. 위 직장(사업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직장명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중소기업체인 경우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 표기 요망
 직장의 사업 내용(업종): _____
- 14-3. 위 직장(사업체)에서 귀하가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사무직인 경우 행정직/전산직/기술직, 음식점인 경우 조리/서빙 등, 교사인 경우 영어/수학 등 과목명 기입
 주로 하는 일: _____
- 14-4. 위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프리랜서, 공무원의 경우 급수, 회사원의 경우 겸사원/대리/과장/부장 등의 직위, 음식점인 경우 사장/매니저/일반직원 등
 직장(사업체) 내 직위: _____
- 14-5.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입니까? (출퇴근시간 제외) _____ 시간

15. 다음은 직장에서 시행 가능한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현재 직장
 에서 귀하께서 이용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프리랜서이거나 무급 가족업 종사자는 본 문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6번 문항으로

구분	세부 정책	이용 여부			
휴가 및 휴직	15-1. 여성의 출산휴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미시행	④ 시행여부 모름
	15-2. 여성의 육아휴직	① 예	② 아니오	③ 미시행	④ 시행여부 모름
보육지원	15-3. 직장 보육시설	① 예	② 아니오	③ 미시행	④ 시행여부 모름
	15-4. 보육비 지원	① 예	② 아니오	③ 미시행	④ 시행여부 모름
모성보호	15-5. 수유실 설치	① 예	② 아니오	③ 미시행	④ 시행여부 모름
	15-6. 유급수유시간	① 예	② 아니오	③ 미시행	④ 시행여부 모름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15-7. 시차 출근제	① 예	② 아니오	③ 미시행	④ 시행여부 모름
	15-8. 대체인력풀 운영	① 예	② 아니오	③ 미시행	④ 시행여부 모름
	15-9.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① 예	② 아니오	③ 미시행	④ 시행여부 모름

* 여성의 출산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는 것(근로기준법 제74조의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2008.1.1 이후 출생한 영유아는 만3세까지)를 가진 남성 또는 여성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것(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
 유급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자 근로자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근무 중 수유시간을 부여받는 것
 시차출근제: 근로자가 사정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근로기준법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신 최대 1년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항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의 총 사용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음

다음은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6. 귀하께서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고 이용하고 계십니까? 또 임신과 출산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의 임신과 출산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 '임신과 출산 시 이용여부', '출산에 미친 영향'은 본 조사의 해당 자녀에 한함

시행정책	인지 여부	이용 여부	임신과 출산에 미친 영향	앞으로의 임신과 출산에 미칠 영향
16-1. 육아지원비	① 네 ② 아니오	① 네 ② 아니오	① 묻지 않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저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해당되지 않는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저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2. 보육/교육료지원	① 네 ② 아니오	① 네 ② 아니오	① 묻지 않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저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해당되지 않는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저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3. 고운맘카드	① 네 ② 아니오	① 네 ② 아니오	① 묻지 않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저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해당되지 않는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저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4. 난임부부지원	① 네 ② 아니오	① 네 ② 아니오	① 묻지 않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저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해당되지 않는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저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5. 맞벌이부부 보육료지원 확대	① 네 ② 아니오	① 네 ② 아니오	① 묻지 않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저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해당되지 않는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저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육아지원비: 아동양육수당,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영아 대상으로 월 10만원 지급
 보육/교육료지원: 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 이용 시 가구소득 대비 보육료 지원
 고운맘카드: 임신출산비용지원, 출산장려지원금 포함, 1인당 30만원 지원
 난임부부지원: 시험관 임신, 인공 수정 등 보조생식술 지원, 월 소득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짐
 맞벌이부부 보육료지원 확대: 2010년부터 실시 시작

17. 다음 중 요즘 자녀 출산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 ①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
(신생아 장애예방 지원, 보육비, 교육비, 양육수당, 아이돌보미 지원 등)
- ② 임신부를 위한 지원
(난임부부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확대 (고운맘카드), 산모 도우미 서비스, 출산·양육 정보 및 상담서비스 등)
- ③ 일하는 부모(맞벌이)를 위한 출산, 양육지원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출산·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전업주부 이용가능))
- ④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다자녀 추가 공제제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다자녀 우대카드,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 ⑤ 다양한 가정을 위한 지원
(신혼부부 가정, 입양아 및 장애아 가정, 농·어업민 가정)

17-1. 위의 지원정책 외에 어떤 정책이 출산과 육아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8. OO의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 ① 있다 18-1번 문항으로 ② 없다 19번 문항으로

18-1. 누구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OO의 외조부모 ② OO의 친조부모 ③ OO의 순위 형제자매
- ④ 친인척 (OO와의 관계: _____) ⑤ 친구 또는 이웃
- ⑥ 가사 도우미 ⑦ 기타 _____

18-2. 그 중 가장 많이 도와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_____

19.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 ⑤ 전문대(기능대학) ⑥ 대학교 ⑦ 대학원 석사 ⑧ 대학원 박사

20. 귀하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100만원 이하 ② 101만원~200만원 ③ 201만원~300만원
- ④ 301만원~400만원 ⑤ 401만원~500만원 ⑥ 501만원~700만원
- ⑦ 701만원~800만원 ⑧ 801만원~900만원 ⑨ 901만원~1000만원
- ⑩ 1001만원 이상

☞ 답례품을 보내드리기 위해 맥 주소와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름 :	휴대전화 : - -
집 전화 : - -	배우자 휴대전화 : - -
이메일 :	
집 주소 : _____도/시 _____시/군/구 _____동/읍/면 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6. 질문지 원도구 출처목록

구분	변인	출처
어머니 특성	결혼상태, 결혼시기	이삼식·정윤선·김희경·최은영·박세경·조남훈 외(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종학력	유한구·김양분·현주·김일혁·강상진·김현철 외(2005). 한국교육총단연구 2005(I)-에비조사 보고서 .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삼식·정윤선·김희경·최은영·박세경·조남훈 외(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근로특성 취업/학업 상태 직장 및 학업 복귀 계획/시기	이경상·김기현·조주연·김현희·박영실 (2006). 한국 청소년패널조사 (KYPS) IV-조사개요 보고서 .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유한구·김양분·현주·김일혁·강상진·김현철(2005). 한국교육총단연구 2005(I)-에비조사 보고서 .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임신관련 특성	산모 신장, 체중 임신방법, 재태기간 이전 임신 경험	한국아동학회·한솔교육문화연구원. (2001). 아동발달백서 . 서울: 한솔교육.
임신 태내 환경	흡연 음주 임신 중 영양상태 출혈, 질병, 출산 외 입원, 주위의 흡연, 약물복용, 환경오염물질 노출, 기타	Fagerstrom, K. O., Heatherton, T. F., & Kozlowski, L. T. (1991). Nicotine addiction and its assessment. <i>Ear, Nose and Throat Journal</i> , 69, 763-765. Babor, T. F., Higgins-Biddle, J. C., Saunders, J. B., & Monteiro, M. G. (2001). <i>AUDIT: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Guidelines for use in primary care)</i> (2nd ed). Geneva, Switzerland: Department of Mental Health and Substance Depende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국민건강 영양조사 제3기(2005)-총괄 . 서울: 저자.

구분	변인	출처
	태교 태교의 필요성, 방법, 정보, 태교 실시자, 태교 시작시기, 태교한 이유, 태교 효과, 태교효과 여부에 따른 이유	자체제작
출산	출산관련 특성 분만형태, 분만시 의료적 도움	한국아동학회·한솔교육문화연구원. (2001). 아동발달백서 . 서울: 한솔교육.
	분만 교육, 교육장소 배우자분만교육동참여부 산후조리장소	자체제작
	계획 임신 여부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1999). <i>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Phase I Instrument Document</i> . http://secc.rti.org/instdoc.doc .
	기대성별	한국아동학회·한솔교육문화연구원. (2001). 아동발달백서 . 서울: 한솔교육.
	기대자녀수, 이상자녀수, 후속 출산 의도, 출산 중단 이유	이삼식·정윤선·김희경·최은영·박세경· 조남훈 외(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 서울: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아선호 언론보도, 여아선호언론보도의 영향	자체제작	
신체발달	체중, 신장	한국아동학회·한솔교육문화연구원. (2001). 아동발달백서 . 서울: 한솔교육.
	두위, 출생 후 건강상태	자체제작
기질	정서성	Buss, A. H., & Plomin, R. (1984). <i>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i> . Hillsdale, NJ: Erlbaum. 박응임(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자녀가치	모의 자녀가치	이삼식·정윤선·김희경·최은영·박세경· 조남훈 외(2005). 2005년도 전 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 서 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 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구분	변인	출처
양육신념	모의 양육신념	Halman, L. (2001). <i>The European Values Study 1999: A third wave - Source book of the 1999/2000 European Values Study Surveys</i> . http://www.europeanvalues.nl .
양육스트레스	모의 양육스트레스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i>대한가정학회지</i> , 35(5), 141-150.
아버지의 양육참여	모가 인식한 남편의 양육참여	강희경(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부정적 심리특성	우울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Walters, E. E., & Zaslavsky, A.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i>Psychological Medicine</i> , 32(6), 959-976.
결혼만족도	모의 결혼만족도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i>Psychological Reports</i> , 95, 1015-1022.
가족생활사건	규범적 사건, 비규범적 사건	McCubbin, H., Patterson, J., & Wilson, L. (1982).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In D. Olson, H. I.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 M. Wilson (Eds.), <i>Family inventories</i> (pp. 69-89).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최연실(1996).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가족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가계경제요소	월평균소득	유한구·김안국·민주홍·류지영·신동준·손희전·최기산(2006). 한국 교육 고용 패널조사 .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구분		변인	출처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현황	대리양육자 유무, 대리양육자유형, 주대리양육자	서문희·조애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지원 정책 특성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	육아지원비 보육/교육료지원 고운맘카드 난임부부지원 맞벌이부부 보육료지원 확대	자체제작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직장육아지원제도 시행여부 및 이용여부	자체제작
	정책의 방향	바람직한 육아지원 정책방향	서문희·최혜선(2007). 영아 양육지원 중합대책 방안 .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2011-27

한국아동패널 부가조사보고서 - 2010년도 출생아 가구 조사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6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01-5

